2022 05 Vol. 183







- 1 <u>금천예술공장</u> <금천, 봄>
- 2 서울문화재단 대학로센터

<봄을 여는 '사이키델릭 샤머닉 펑크 & 재즈'>

3 <u>연희문학창작촌</u> <연희에 물들다_봄, 시작>





한 달에 한 번 서울시민에게 드리는 예술공감 콘서트

서울 스테이지11

매달 첫 번째 목요일 오전 11시, 11개 공연이 서울문화재단 이 운영하는 11곳의 창작공간에서 열린다. 예술 창작 중심의 창작 공간(문래예술공장·금천예술공장·서교예술실험센터·연희문학창 작촌·서울무용센터·서울연극센터), 예술교육 중심의 창작공간(서울예술교육센터·서서울예술교육센터), 플랫폼 중심의 창작공간(대학로센터·청년예술청·시민청) 등이다. 올해 초 서울문화재단은 서울의 문화예술 판을 뒤흔들 10대 혁신안을 발표하면서 그중 첫 번째 사업으로 <서울 스테이지11>을 선보였다. '매달 첫 번째 목요일, 서울의 11개 창작공간에서 동시에 콘서트가 펼쳐진다'는 슬로건 아래 올해 100여 개의 문화예술 단체가 저마다 색다른 공연을 선보일 예정이다.

4월 7일 대학로센터·연희문학창작촌·금천예술공장에서 열린 공연은 이 사업의 시작을 알리는 자리였다. 시범 공연 성격의 이날 공연은 3개 장소에서 3개의 다른 공연을 선보이는 것으로 진행됐는데, 야외

광장에 마련된 객석에 공연 시작 전부터 관객들이 들어차기 시작했고, 일주일 전 홈페이지를 통해 예약 신청을 받은 객석은 빠른 속도로마감됐다. 일주일 전만 해도 비 예보가 있었으나 다행히 행사 당일에는 화창해 현장의 분위기가 한껏 달아올랐다. 6월 이후에는 11개의공간이 모두 참여하면서 연말까지 100개의 공연을 펼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서울문화재단의 이창기 대표이사는 <서울 스테이지11>의 의의에 대해 "코로나19로 인해 공연 발표 기회가 줄어든 예술인들에게 실험 무대를 제공하겠다"라며 "이로써 예술가들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그동안 재단이 장르별로 운영해 오던 창작공간의 성격을 다변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라고 전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를 통해 서울시 민들의 오전에 예술과 문화가 있는 삶을 제공하고 싶다"고도 덧붙였다. <서울 스테이지11>이 일상 속에서 시민들에게 감동을 주는 프로그램으로 뿌리내리길 기대해 본다.

Contents

2022 05 Vol. 183

커버스토리

00 ---- 01

서울 스테이지11



테마토크 서울스테이지11

현장스케치 06 ---- 11

대학로센터, 연희문학창작촌, 금천예술공장

인터뷰 12 ---- 13

참여 예술가 인터뷰

리플릿 14 ---- 15

서울 스테이지11 탐방 지도

서울찰나 16 ---- 17

이슈+서울

이슈1 18 --- 21

장벽을 낮추는 극장

이슈2 22 --- 25

아트마켓 <에스스토어S-store>

서울문화재단 [문화+서울]

발행처 (재)서울문화재단 발행인 이창기

편집 총괄 이규승 기획·편집 김영민, 오니트(주)(장보영, 장영수) 객원 편집위원 전민정

사진 (재)서울문화재단 **디자인** 오니트(주)

주소 서울시 동대문구 청계천로 517 전화 02-3290-7063 팩스 02-6008-7347

홈페이지 www.sfacor.kr **웹진** www.sfacor.kr/magazine **발행일** 2022년 5월 2일 **등록일** 2005년 6월 8일



48 ----- 49

트렌드+서울

문화인 26 --- 31

반도네오니스트 고상지

서울산책 32 --- 35

문래예술공장

공감1 36 --- 37

뮤지컬 <쇼맨_어느 독재자의 네 번째 대역배우>와 <렛미플라이>

공감 2 38 --- 39

책 《사소한 기쁨》과 《가드너의 일》

웹진 [연극in]

연극실험실 혜화동1번지 세월호 기획공연

웹진 [춤:in] 50 ---- 51

전쟁과 <백조의 호수>

5월의 서울문화매뉴얼 52 ---- 58

편집후기 60

이야기+서울

김송희의 썰(說) 40 ---- 41

웹드라마 <시맨틱 에러>

최재훈의 씨니컬 42 ---- 43

Cine_Col: Cinema Column

박희권 감독의 <축복의 집>

윤중강의 국악 실록 44 ----- 45

'수궁가'의 영원한 라이벌, 임방울과 김연수

웹진 [비유] 46 ----- 4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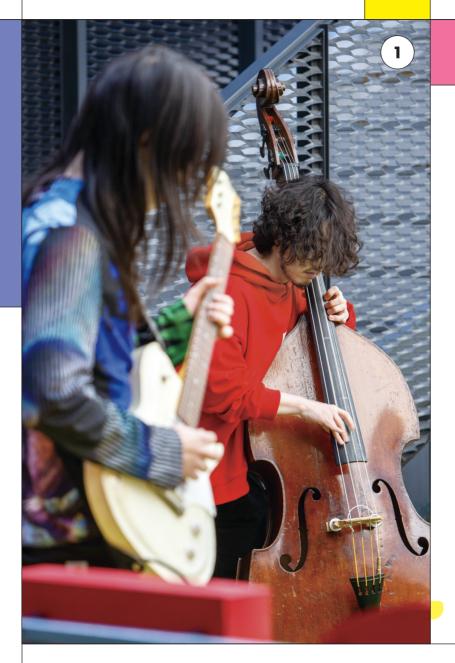
끝없는 디아스포라





(재)서울문화재단에서 발간하는 월간지 [문화+서울]은 서울에 숨어 있는 문화 욕구와 정보가 원활하게 소통할 수있도록 예술가들의 창조적 힘과 시민들의 일상을 이어주는 다리가 되고자 합니다.

[문화+서울]에 실린 글과 사진은 (재)서울문화재단의 허락 없이 사용할 수 없으며, [문화+서울]에 실린 기사는 모두 필자 개인의 의견을 따른 것입니다.



기나긴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문화생활을 즐기기 힘들었던 시민과 무대에 설 기회가 좀처럼 없었던 예술가를 위해 매달 첫 번째 목요일 오전 11시. 11개의 공연이 서울 곳곳에서 동시에 펼쳐진다. 각기 다른 11개 창작<mark>공간</mark>에서 열리는 만큼 국악, 인디 음악, 북 콘서트, 클래식, 무용 등 분야와 출연하는 예술가도 각양각색이다. 4월 7일 봄꽃이 한창이던 야외에서 열린 시범 공연 현장을 둘러보고 5월 5일 어린이날에 열릴 공연의 정보와 창작공간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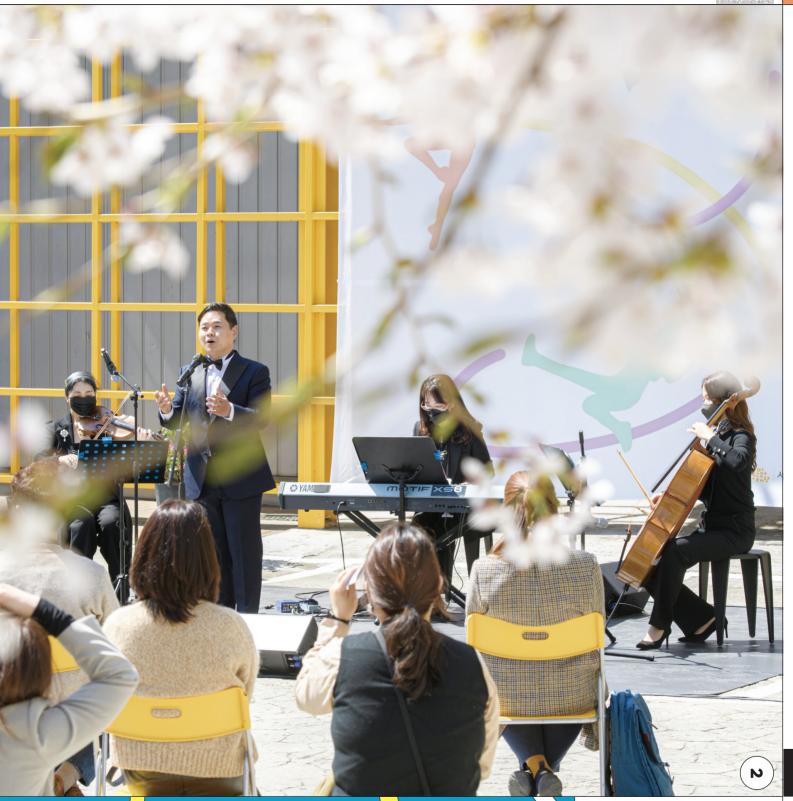
확인해 본다.

서울 스테이지11

매달 첫 번째 목요일 11시에 만나요







- 1 크로스오버 재즈 밴드 '만동'
- 2 '밀레니엄 오케스트라 앙상블'과 김현호 테너



그날 그곳에선 무슨 일 이

서울문화재단 대학로센터, 연희문학창작촌, 금천예술공장

매달첫번째목요일
오전 11시에서울시내 11개

창작공간에서 동시 진행될
〈서울 스테이지!!」〉,
시범 공연을 통해 포문을 연
4월 7일 3 개의
공연 현장을 다녀왔다.
대학로센터, 연희문학창작촌,
금천예술공장.
위치도, 모습도, 기능도
모두 다른 이곳에서 그날
각각 무슨 일이 벌어졌을॥?





조용한 동네의 오전, 대학로에 울려 돼진 국악+양악의 선율

봄을 여는 '사이키델릭 샤머닉 펑크 & 재즈'

서울문화재단 대학로센터

공연의 메카인 대학로의 피크 타임은 주로 공연이 진행되는 저녁 시간이다. 하지만 올해 4월을 시작으로 매달 첫 번째 목요일 오전 만큼은 예외가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4월 7일, 공연이 열리기에 는 아직 이른 시간인 오전 11시, 대학로가 들썩였다. 서울문화재단 이 서울시 곳곳에서 운영하는 예술 창작공간 11군데에서 선보이는 예술공감 콘서트 〈서울 스테이지11〉이 서울문화재단 대학로센터 (종로구 동중길 122)에서 펼쳐진 것이다.

무가와 젬베이 이색 만남

< 서울 스테이지11> 대학로센터 공연의 시작은 무가區域, 무속음악과 평크, 레게 등을 결합해 대중으로부터 폭발적인 반응을 이끈 화제의 팀 '추다혜차지스'의 히로인 추다혜와 록과 재즈가 혼합된 크로스오버 재즈 밴드 '만동Mandong'이 열었다. 조용하던 동숭길은 국악과 양악이 혼재된 선율로 가득 찼다. 당초 비가 내릴 것이라는 일기예보와 달리 파란 하늘 아래 밝은 볕이 둘러싼 대학로센터 야외마당은 소규모 음악 페스티벌이 열린 듯했다. 흔히 '마티네 콘서트'라 불리기도 하는 오전 공연은 익숙한 공연의 한 형태다. 팬데믹이 장기화한 지금, 일상에서 만나는 문화예술 이라는 점에서 새삼 의미를 더한다.

코로나19로 인해 '추다혜차지스'가 아닌 소리꾼 추다혜의 목소리로 온전히 채우게 된 이번 무대는 기타와 젬베만으로 꾸린 어쿠스틱 버전으로 진행됐다. 추다혜는 서도 민요를 기반으로 다양한 음악적·연극적 요소를 활용해 장르의 경계를 과감하게 넘나드는 국악 창작자다. 한국 민요를 록 음악과 결합해 민요의 새로운 방향을 보여주며 '조선팝조선+POP'의 열기를 이어가는 젊은 예인 중 한 명이다. 추다혜는 2020년에 결성한 창작음악그룹 '추다혜차지스'를 통해 2021년 제18회 한국대중음악상에서 '최우수 알앤비&소울' 노래' 부문상을 수상한 바 있다.

시간과 공간을 넘나드는 조선팝 여행

하얀 천이 봄바람에 휘날리는 야외무대에 하얀 깃털 머리띠를 한 채 등 장한 추다혜는 평안도 서낭굿의 무가 '비나수+'를 첫 곡으로 선보였다. '비는 손(손없는날)'이라는 뜻을 가진 이 곡은 신에게 굿을 행하는 장소와 이유를 읊고, 굿이 잘되길 기원하며 부르는 노래다. 공연에 앞서 추다혜는 "요즘 다들 힘드실 텐데 관객 앞에 설 때면 '돈 많이 버시고, 건강하시라'라는 마음을 노래에 담는다"며 노래를 소개했다. 앞부분은 간결하면 서도 강력한 베이스라인을 통해 루츠 레게Roots Reggae, 아프리카민족간의 통합과사회정치적 종교적 내용을 담은레게 음악의 색채를 강하게 내뿜고, 뒷부분은 보컬에 맞춰 흘러가는 자유로운 연주를 통해 실제 굿판에서 볼 수 있는 악사와 무당의 관계를 떠올리게 하는 특징이 있다.

공연이 정점으로 무르익을 때쯤, 때맞춰 점심을 먹으러 나온 인근의 직장인들도 하나둘 발길을 멈추고 대학로에 울려 퍼지는 '조선팝'에 머물렀다. '비나수+'에 이어 추다혜는 평안도 다리굿의 무가인 '오늘날에야', 제주도 칠머리당영등굿의 무가 '사는 사', 제주도 무가이자 제주도 대표민요인 서우제소리를 재해석한 '리츄얼댄스', 황해도 배굿에서 쓰이는무가 '에헤리쑹거야' 등을 연이어 불렀다. 우리 국악에 젬베, 기타 음색이더해지자 어깨를 들썩이고 리듬을 타는 관객이 늘어갔다.

이날은 록과 재즈의 문법이 혼재돼 장르적 경계와 구분을 넘나드는 3인 조 크로스오버 재즈 밴드 '만동'의 공연도 펼쳐졌다. 2020년 첫 번째 앨범 <먼저 출발해야지>를 발매하며 왕성하게 활동하는 '만동'은 음악가와 미술가의 컬래버레이션으로 장르의 확장을 시도한 것이 특징이다. 이날 공연에서는 'Sun Room' '홍시색 노을 위로' '귀여움의 강도' 등을 선보였다. 피어나는 벚꽃과 함께 시작한 <서울 스테이지11>의 대학로센터 공연은 하반기에도 매달 이어질 예정이다. 조용한 오전의 동네, 대학로에서 예술의 선율을 즐길 수 있는 <서울 스테이지11>의 공연은 모두 무료이다. 서울문화재단 누리집(sfac.or.kr)을 통해 세부 공연 내용을 확인할 수 있고 관람신청도할 수 있다.

글 김영민_서울문화재단 홍보IT팀 | **사진** 서울문화재단

들으려는 마음이 있었기에 우리는 만났다

연희에 물들다_봄. 시작

연희문학창작촌

지난 4월 7일, 연희문학창작촌에서 낭독회가 열렸다. 〈서울 스테이지!!〉의 여러 무대 중 연희문학창작촌에서 주최하는 〈연희에 물들다〉의 이번 테마는 '봄, 시작'이었다. 때마침 연희문학창작촌에서 대무르던 황현진 소설가와 박지일 시인이 낭독을 맡고, 박종성하모니시스트, 조영훈 피아니스트가 연주를 맡았다. 당사자인 황현진 소설가의 시선으로 현장의 분위기를 소개한다.

꽃과 함께 창작촌 물들인 시아 음악

모처럼 여는 대면 행사였던 까닭에 솔직히 부끄러운 마음이 앞섰다. 아주 오랜만에 겪는 부끄러움이었다. 그즈음 친하게 지내는 시인이 내게 여러 번 당부하기를, 연희에 목련이 피면 꼭 말해 달라고 했다. 그간에는 늘 때를 놓쳐서 꽃이 지는 풍경만을 봤다고, 이번 봄에는 꼭 만개한 목련을 보고 싶다고 했다. 흩날리며 추락하는 꽃 말고 가지에 든든히 붙박인 꽃을 보고 싶은 마음이 무얼 바라는 마음인지 알 것도 같았다. 더는 지지 말아야지, 그런 결심과도 아주 무관하지 않은 바람 같아서 나는 틈만 나면 목련나무 아래 서서 유심히 위를 올려다보곤 했다.

언제부터 봄이었을까. 3월에서 4월로 건너는 그사이, 목련이 환하게 피어난 그때가 누군가에게는 봄의 시작이었을 것이다. 낭독회를 준비하는 동안 새삼 봄에 대해 깊이 생각했다. 박지일 시인도 그러했지 싶은데, 그마음이 무색할 정도로 창작촌 곳곳에 꽃이 폈다. 창작촌 입구에 있는 살구꽃이 먼저 피고, 목련이 만개할 때쯤 벚꽃이 꽃망울을 터뜨리기 시작했다. 의심할 바 없는 봄이었지만 2022년의 봄은 지난해의 봄과는 사뭇달랐다. 서로 얼굴을 마주 보며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가 가능해졌다는 것, 어두운 한 시절이 끝나가고 있음에 대한 예보였다.

"밀려오는 파도 있으니 밀려가는 파도 있을 것이고 나는 당연한 것만 말하고 싶고 당연한 것이라도 말하고 싶다. 제발. 이 순간 나는 너밖에 몰

라. 너를 사랑한다."

박지일 시인이 낭독한 시의 한 대목이다. 박종성 하모니시스트, 조영훈 피아니스트가 시 낭독의 뒤를 이어 스트라토바리우스의 'Forever'를 연주했다. 수많은 노래 중에서 스트라토바리우스의 'Forever'를 선곡한 마음을 그 자리에 있던 모두가 알아챘을 거다. 사랑한다는 고백은 순간에 불과하지만 영원한 기억으로 남으리라는 것, 시인이 못다 한 말을 음악이 대신해 주던 그 순간을, 우리는 희망이라고 부를 수 있지 않을까.

오전 11시. 봄이 시작된 시간

희망의 다른 말이 있다면 시작일 테고, 시작에 어울리는 계절은 단연코 봄이다. 12음계로만 이뤄진 음악이 셀 수 없이 많은 멜로디를 자아내는 것은 봄과 닮았다. 가사 없는 음악이 멜로디 없는 글의 빈자리를 채우는 것도 봄과 닮았다. 나는 읽기 위해 그 자리에 섰지만, 누군가는 듣기 위해 그 자리에 왔다. 들으려는 마음이 있었기에 우리는 만날 수 있었던 거라 민는다.

살다 보면 같은 시대에 같은 장소에서 산다는 것만으로도 대단한 필연임을 실감할 때가 더러 있다. 어쩌면 우리는 미처 가닿지 못하는 필연들을 잇기 위해 음악과 이야기를 사랑하는 걸지도 모르겠다. 관객석에 앉아 있던 누군가의 말이 잊히지 않는다. 마침내 하나의 이야기가 끝나가고 하모니카와 피아노의 연주가 그 뒤를 이어갈 때, 한차례 바람이 지나가더니 우수수 목련꽃이 쏟아졌다고.

연희에서 겨울을 보낸 나에게는 잊히지 않는 풍경이 있다. 이따금 밤에 눈이 내렸다. 아침에 나가 보면 쌓인 눈 위로 누군가의 발자국이 찍혀 있었다. 이상하리만치 마음이 놓였다. 어둑어둑해지는 저녁 무렵, 누군가의 방에 불이 켜지는 순간을 목도할 때도 같은 마음이었다. 인기척이 남긴 흔적들을 맞닥뜨리고 그 흔적들을 뒤따르는 게 참 좋았다. 창 너머로 새어 나오는 빛과 또렷한 발자국, 우편함에 놓인 봉투로 누군가의 안부를 미뤄 짐작하는 삶이 아주 낯설지만은 않았다. 기억에서 지워졌을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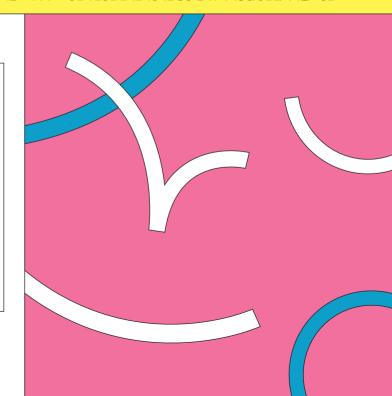


<서울 스테이지11> 공연이 한창인 연희문학창작촌 풍경. 왼쪽부터 박종성, 황현진, 박지일, 조영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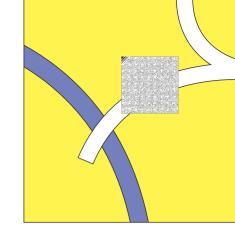
도 있고, 어쩌면 내가 살아보지 못한 과거가 되돌아온 듯도 했다. 연희에서 겨울을 나기로 한 건 정말로 다행한 일이었다. 괴이쩍은 이야 기처럼 들리겠지만 그런 식으로 과거를 살아보는 게 반드시 나쁜 것만은 아닐 수도 있음을 알았다. 그 겨울이 없었다면 목련나무를 올려다보는 일도 없었을 테고, 누군가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는 사람들과 다정한 눈인사 또한 나누지 못했을 거다. 내게 언제 봄이 시작됐냐고 묻는다면 그날, 아침 11시.

바람이 불던 날 아침, 지는 꽃잎들을 함께 바라보던 우리가 있었고, 그게 우리가 누린 전부는 아니었다.

글황현진_소설가 | **사진** StudioOKLM







금천의 정오를 빛낼 낮은 담 콘서트

'금천. 봄'

금천예술공장

〈서울 스테이지:
이 클래식 음악회 '금천, 봄'이 4월 7일 목요일 오전 11시 30분부터 12시 30분까지 1시간가량 서울문화재단 금천예술공장 야외마당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코로나 19 팬데믹으로 인해 야외 공연이 제한적으로 열릴 수밖에 없었던 상황에서 열린 무대라 참가한 예술가들은 물론 객석의 관람객들에게도 기대되는 자리였다.

이번 공연은 벚꽃 피는 봄날의 오전, '성악가가 들려주는 재미있는 클

공장 밖으로 울려 퍼지는 사랑 노래

래식 이야기'라는 콘셉트 아래 '밀레니엄 오케스트라 앙상블'의 클래식 연주, 그리고 김현호 테너의 음색이 조화를 이룬 야외 공연으로 진행됐다. 현장에는 금천구민을 비롯한 서울시민 5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공연에서 바이올린(최유선), 첼로(김지혜), 피아노(이은실) 트리오 연주를 맡은 '밀레니엄 오케스트라 앙상블'은 2003년 창단한 밀레니엄심포니오케스트라의 정단원으로 구성됐다. 밀레니엄심포니오케스트라는 일반 대중이 클래식을 좀 더 친숙하게 접할 수 있도록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기획·편곡·연주하는 순수 민간 교향약단이다. 바야흐로 4월을 맞이한 만큼 '금천, 봄'에서는 요한 슈트라우스의 '봄의 소리 왈츠', 에드워드 엘가의 '사랑의 인사', 아스토르 피아졸라의 '리베르탱고' 등 봄의 활기찬 기운을 느낄 수 있는 피아노 트리오 8곡을 선보였다.

이날 연주한 '밀레니엄 오케스트라 앙상블'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무척 오랜만에 열린 오프라인 공연을 통해 관람객들과 직접 호흡하며 소통할 수 있어 감사한 자리였다"며 "향후 기회가 된다면 클래식 악기 로 연주하는 대중음악도 들려드리고 싶다"고 참가 소감을 전했다.

'금천. 봄2'는 5월 5일 목요일 서귀스 쇼로 진행



클래식의 선율에 테너의 음색과 해설을 더해 공연을 더욱 풍성하고 웅장하게 이끈 김현호 테너는 이날 공연에서 임긍수의 '강 건너 봄이 오듯', 에두아르도 디 카푸아의 '오, 나의 태양', 오페라 <투란도트> 중 '공주는 잠 못 이루고' 등 국내외 가곡 및 오페라 총 3곡을 포함해 관객들의 환호 속에 앙코르곡으로 뮤지컬 <지킬 앤 하이드>의 '지금 이 순간' 등을 열창했다.

김현호 테너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일상생활에 무료함과 답답함을 느끼는 시민들을 위해 마련된 이번 무대가 정말 소중하다"며 "<서울 스테이지11>을 계기로 예술가들과 관람객들이 더욱 가까이서 부담 없이 함께 어우러지며 응원할 수 있는, 이러한 무대가 많이 생겼으면 좋겠다"고 참가 소감을 전했다.

'금천, 봄'이 열린 금천구 독산동의 금천예술공장(금천구 범안로15길 57)은 서울문화재단이 운영하는 창작공간이다. 넓은 작업 공간 및 전시 공간이 필요한 시각예술가들이 상상의 나래를 마음껏 펼쳐볼 수 있도록 개인 작업실 등의 입주 공간으로 구성되어 있다. 한편, 5월 첫 번째 목요일인 5일 11시 30분에는 '금천, 봄2'가 열릴 예정이다. 클래식 공연이었던 이번 공연과 스타일을 달리해 서커스 코미디 쇼를 선보일 예정이다.

글 장보영_객원 기자 | **사진** 백종헌

인터뷰

취향 저격, 공연 다 모았다!

참여 예술가 인터뷰

금천예술공장, 연희문학창작촌, 서울문화재단 대학로센터에서 고유의 개성으로 각기 다른 무대를 선보이며 시민들에게 즐거움을 전해준 출연자 세 사람을 만났다. 김현호 테너, 박종성 하모시니스 트. 크로스오버 재즈 밴드 만동에게 공연 이야기를 들어보자.



도심 한복판에서 얻는 위로와 기쁨 김현호 테너

2017·2018년 한국문화재재단에서 주관한 경복궁창경궁 고궁 음악회 최초 초청 성악가로, 2019년 외교부 초청 임시정부 수립 3·1운동 100주년 기념 음악회, 2018년 외교부 초청 한미 우호의 밤 리셉션 등의 무대에 섰다. 서울대 음악대학 성악과 및 동 대학원을 졸업했으며 서울시 오페라단 단원으로 활동했고, 현재 파주 헤이리 예술마을 '예맥아트홀'의 예술감독이다.

Q 금천예술공장에서 열린 <서울 스테이지11> '금천, 봄' 공연에서 <mark>진</mark>행 해설·노래 등 멀티 플레이어로 활약하셨는데, 소감을 들려주세요.

A 그동안 코로나19로 인해 무대에 대한 목마름으로 어려운 시간을 보내야 했기에 올해 첫 대면 아외 공연인 만큼 기대하는 마음, 감사하는 마음으로 참여했습니다. 금천예술공장을 상징하는 멋진 조형물, 앞뜰의 벚꽃나무가 콘서트 분위기와 어울려 인상적이었어요. 또한 와주신 관객분들이 보내주신 호응과 박수가 큰 위로가 됐습니다. 모두에게 행복과 희망의 꽃이 피어나는 공연이었다고 할까요?

Q 이번 무대를 위한 선곡, 어떻게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A 봄날에 펼쳐지는 야외 공연 콘셉트에 맞게 봄을 환영하는 노래, 그리고 모두에게 익숙해 편안하게 즐길 수 있는 곡을 골랐습니다. 하나같이 명곡이라 곡을 부르는 저부터도 행복했습니다.

○ 공연 중 좋았던 점은요?

A 지역 주민분들과 아이들이 일상 속에서 문화예술을 즐길 수 있는, '높은 담이 없는 콘서트'였다는 점이 좋았습니다. 앞으로도 예술가들과 관객들이 더욱 가까이서 부담 없이 함께 어우러질 수 있는 무대가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Q 이번에 들려주신 곡 외에, 이 봄에 추천하는 클래식 음악 추천 부탁 드립니다.

A 봄이라는 계절에 딱 맞는 슈만의 연가곡 '시인의 사랑'을 추천합니다. 여러 성악가가 불렀지만 저는 테너 페터 슈라이어가 부른 판을 가장 좋 아합니다. 인터넷을 통해 검색하면 곡마다 가사 해석이 잘되어 있어요. 꼭 가사를 확인하며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Q 향후 열릴 <서울 스테이지11> 공연에 바라시는 점이 있나요?

▲ 찾아주시는 관객분들의 격려와 환호 덕분에 오히려 예술가들이 큰 위로와 힘을 얻을 수 있는 시간인 듯합니다. 앞으로도 더욱 많은 예술가들이 참여하며 함께할 수 있는 도심 속 다양한 형태의 열린 문화 공연을 통해 일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위로와 기쁨을 주는 <서울 스테이지 11>이 됐으면 합니다. 예술가들 스스로도 만족할 수 있는, 수준 높고 감동적인 무대를 만들겠습니다. 많이 보러 와주세요.



한 달에 한 번, 자연에서 즐기는 음악과 문학 박종성 하모니시스트

2019년 <하모니시스트>를 발매한 박종성은 오케스트라챔버누벨유럽, 코리안 심포니오케스트라, 경기필하모닉오케스트라, 수원시립교향악단 등 다수의 오 케스트라와 협연을 이어왔으며, 제주국제관악제, 광주관악페스티벌에 초청받는 등 페스티벌 무대에서도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Q 연희문학창작촌에서 열린 <서울 스테이지11>의 진행과 하모니카 연주를 맡으셨어요. 무엇이 인상 깊게 남으셨나요?

△ 글을 쓰신 작가님들의 목소리로 작품을 들어서 좋았어요. 미리 여러 번 읽었어도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작가님 목소리로 듣자마 자 특별한 설명이 없었음에도 이해가 되더라고요. 확실히 '작가님의 낭 독에 힘이 있구나' 싶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연주할 차례를 기다리기보 다 저 또한 한 사람의 관객으로서 이 시간에 푹 빠져 감상했습니다.

Q 행사 중 황현진 소설가가 단편소설 <내가 원했나봅니다>를 낭독했죠. 이후에 아이유의 '밤편지'를 하모니카 연주로 들려주셨는데 곡은 어떻게 고르셨나요?

▲ 선곡할 때 단순히 '어울리겠다' 정도로 고르지 않아요. 신중하게 깊이 생각하는 편인데요. 혹시라도 작가님이 쓰신 작품의 의도에서 벗어난 곡을 연주할까 봐서 그게 제일 걱정이었죠. 조심스럽게 곡을 고르지만, 한편으로 저도 독자니까 느낌 그대로 정하기도 해요. 참고로 작가님이 낭독하고 있을 때 흐르던 피아노 반주는 조영훈 피아니스트가 즉흥으로 연주했습니다.

Q 시민분들께 전하고 싶은 말이 <mark>있나</mark>요?

△ 집에서 혼자 책을 읽을 수도 있고, 음악을 감상할 수도 있지만 야외로 나와 바람 소리, 새소리를 들으며 문학과 음악을 함께 즐기는 경험은 흔 하지 않아요. 꼭 직접 방문해서 경험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문학도, 음악 도, 누군가 들어주기 때문에 있는 것이고 누군가 읽어주기 때문에 있지 않을까 싶어요. 앞으로도 문학과 음악 모두 사랑해 주시길 바랍니다.



응축됐던 에너지를 발산하는 올해가 되기를 크로스오버 재즈 밴드 만동

기타의 함석영, 콘트라베이스의 송남현, 드럼의 서경수로 구성된 크로스오버 재 즈 밴드. 2020년 첫 번째 앨범 <먼저 출발해야지>를 발매했다. 록과 재즈의 장 르적 경계와 구분을 넘나들며 음악가와 미술가의 컬래버레이션 등 다양한 음악 작업을 펼치고 있다.

Q 서울문화재단 대학로센터의 <서울 스테이지11> 첫 무대를 여는 팀이었는데요. 콘서트 특성상 공연을 하기에는 이른 시간이었는데 어 땐나요?

A 해가 있어 좋았습니다. 저녁 공연과는 다른 활기가 있더라고요. 야외 공연이라 자연광의 밝은 에너지를 받을 수 있는 점도 좋았습니다.

Q 기타, 콘트라베이스, 드럼으로 구성된 재즈 밴드이면서 음악가나 미술가와 컬래버레이션도 진행하는 등 활발한 활동이 인상적입니다. 올해 새롭게 준비하는 활동이 있다면 소개해 주세요.

A 첫 앨범을 발매한 2020년부터 친구들과 꾸준히 교류하고 있어요. 목 공소, 판화 작업실, 디자인 스튜디오, 발효음식 연구소 등 친구들의 재미 있는 공간을 찾아가 공연하고 있습니다. 멋진 작업이 이뤄지는 현장을 무대로 공연을 기획하고 진행하는 것이 무척 매력적이에요. 올해는 그 공간들이 가진 느낌을 기록해 곡 작업으로 이어가고 있어요. 앨범까지 만들게 되면 정말 좋겠네요.

Q 코로나19로 문화예술계가 받은 타격이 큽니다. 차츰 제약이 풀리면서 공연 소식에 갈증을 느끼던 관객들도 기대를 하고 있는데요. 관객들에게 바라는 점이 있다면 들려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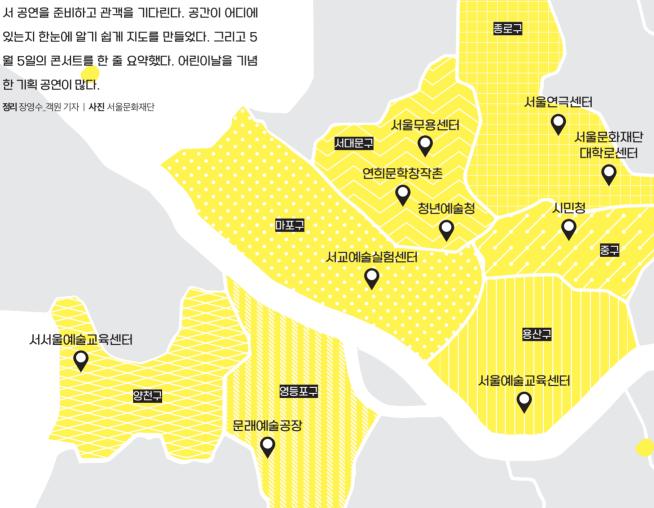
A 만동은 코로나19가 성행하던 시점에 결성됐습니다. 응축했던 에너지 - 를 발산할 때가 된 것 같아요. 공연에 갈증을 느끼는 관객분들과 주고받을 밝고 건강한 기운을 기대합니다.

글 김영민_서울문화재단 홍보IT팀, 장보영·장영수_객원 기자 사진 백종헌, StudioOKLM, 만동

한 달에 한 곳씩 골라보는 재미

서울 스테이지!! 탐방 지도

〈서울 스테이지!!〉은 매달 첫 번째 목요일 오전 11시, 서울 곳곳에 자리 잡은 서울문화재단 창작공간 11곳에 서 공연을 준비하고 관객을 기다린다. 공간이 어디에 있는지 한눈에 알기 쉽게 지도를 만들었다. 그리고 5 월 5일의 콘서트를 한 줄 요약했다. 어린이날을 기념 한 기획 공연이 많다.





선대문

청년예술청

경기대로 26-26 어바니엘 충정로 **102동 지하 2층** 02-362-9747



반도네오니스트 고상지의 탱고 연주. 싱어송라이터 예람의 인디 포크 공연.

시민청



음악 단체 '오르아트'가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춰 각색한 <동물의 사육제> 클래식 공연.

紅물

연희문학창작촌

○ 증가로2길 6-7 02-324-4600



아동문학가의 작품 낭독과 피아노·하모니카 멜로디가 있는 북 콘서트.



문래예술공장

 경인로88길 5-4

 02-2676-4300



앙상블 그룹 '가야금LAB 오드리'가 어린이와 어른을 위해 연주하는 가야금 공연.

선 문

서울무용센터

 명지2길 14

 02-304-9100



제목은 '잼:잼', 무용가와 음악가의 즉흥 컬래버레이션 공연.



금천예술공장

범안로15길 57

○ 02-807-4800 오전 11시 30분~오후 12시 30분



저글링퍼포먼스와 마임이 어우러진 서커스 코미디 쇼.

착

서울예술교육센터

서빙고로17 ○ 02-3785-3199 오후 1시~2시



작곡가이자 피아니스트 김재훈이 프로듀서를 맡은 앙상블 그룹 다이 브라인의 공연.



서울문화재단 대학로센터

 동승길 122

 02-758-2178



화려한 사운드와 흥겨운 그루브, 자메이카 음악에 근간을 둔 스카밴 드의 '킹스턴 루디스카' 공연.

뽁

서교예술실험센터

잔다리로6길 33

♀ 02-333-0246 오전 11시 30분 ~ 오후 12시 30분



포크 싱어송라이터 김사월이 선보이는 어쿠스틱 공연.



서울연극센터

 창경궁로 253-1 2층

 02-743-9333



서울형 연극 창작 생태계의 허브. ※11월 공연 예정



서서울예술교육센터



예술놀이 콘텐츠를 개발하고 확산하는 문화 플랫폼. ※7월 공연 예정







공연계 배리어프리 확산

장벽을 낮추는 극장

배리어프리^{barrier-free} 공연이 공연계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다. BTS^{방탄소년단} 서울 공연에서 수어 통역사가 춤을 추면서 통역을 하고,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윤여정 배우가 청각 장애 배우에게 수어로 축하 인사를 한 것이 화제가 되기 전부터, 공연계는 장애와 상관없이 누구나 공연을 관람할 수 있도록 배리어프 리를 적용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었다.



최근 공연에서 제공하는 배리어프리 서비스는 청각장애인 을 위한 문자 통역(자막 해설)과 수어 통역, 시각장애인을 위해 무대, 배우의 움직임, 소리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음성 해설이 대표적이다. 이외에도 시각장애인들이 공연 시 작 전 무대에서 공연에 사용되는 의상 소품 등을 직접 만져 보고 설명을 듣는 '터치 투어Touch Tour'가 있다. 공연 수어 통 역은 일반 통역과는 달라서 공연 전문 수어 통역사가 맡아서 한다. 동시통역이 아니기 때문에 수어 통역사도 배우들과 마찬가지로 미리 대본을 보며 통역을 준비한다. 공연 문자 통역 역시 일반 행사에서 속기사들이 실시간으로 입력하는 문자 통역과는 다르다. 대사뿐만 아니라 배경음악, 음향효 과에 대한 설명도 해야 하기 때문에 미리 대본을 작성해 공 연과 연동해서 보여준다. 음성 해설을 위해서는 작품 배경. 무대, 의상 등의 정보를 전달하는 대본이 별도로 필요하고, 이를 낭독할 음성 해설가가 있어야 한다. 주로 개인 수신기 를 통해 음성 해설이 제공되지만, 배우가 직접 무대에서 음 성 해설을 하기도 한다.

제대로 된 배리어프리에 도전하다

서울문화재단은 2019년 남산예술센터에서 극단 '여기는 당연히, 극장'과 〈7번 국도〉를 제작하면서 구자혜 연출의 제안으로 배리어프리 공연을 시작했다. 2019년 4개의 시즌 프로그램에 음성 해설, 수어 통역, 문자 통역(폐쇄형, 개방형)과 점자 리플릿 등의 서비스를 제공했으며, 팬테믹 이후 2020년 12월에는 2020년 시즌 프로그램 4개를 배리어프리 공연 영상으로 제작해 '장벽 없는 온라인 극장'에 공개했다.

관악어린이창작놀이터에서는 청각장애 어린이와 가족이함께 관람할 수 있는 배리어프리 어린이 창작 공연 〈끼리?〉를 2021년 10월 무대에 올렸다. 농인학교의 자문과 수어통역협동조합의 협력, 한성자동차 후원으로 수어 통역과 문자통역을 제공했다.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인 만큼 배리어프리 인력 양성에도 앞장섰다. 2020년 서울연극센터 PLAY-UP 아카데미에서는 '공연 배리어프리 버전 제작 가이드'과정을 개설했으며, 메세나팀에서는 국내 최초로 공연예술 분야수어 통역 전문가 양성 과정을 운영해 15명의 전문가를 배출했다

비슷한 시기부터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인력 양성 과정이 잇달아 개설되고 있다. 전문무용수지원센터는 2020년 '무용 음성 해설가 양성을 위한 워크숍'을 진행한 데 이어 2021년에는 심화 과정을 열었다.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은 올해 '이'음 예술창작 아카데미'에 '배리어프리 공연 제작 입문 과정'을 개설해 음성 해설과 수어 통역 분야로 구분해 진행한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2022년 예술극장에서 공연 예정인 6개의 단체와 배리어프리 공연을 준비하면서 지난 3월온라인 워크숍을 개최했으며, 배리어프리를 적용해 6월 17일〈발이되기〉부터 차례로 공개한다.

다양한 사람들이 극장에서 만나기 위해

인력 양성과 함께 최근 배리어프리 공연 제작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곳은 공공극장이다. 국립극단은 '2021 작품개발 사업'의 '창작공감: 연출' 주제를 '장애와 예술'로 정한 후 1 년간 고민하고 창작한 결과물 3편을 지난 3월부터 소극장 판에서 선보였다. 〈이것은 어쩌면 실패담, 원래 제목은 인투디언노운(미지의 세계로, 엘사 아님)〉(3월 12~20일, 김

미란 연출, 이하〈이것은...〉)은 농인^{職人} 배우와 청인^{職人} 배우가 출연하는 다큐멘터리 연극으로, 두 배우는 각자의 언어인 한국수어²와 한국어로 소통했으며, 무대에는 한글 자막과 수어 통역이 제공됐다. 〈커뮤니티 대소동〉(3월 30일~4월 10일, 이진엽 연출)에는 시각장애인 배우 6명, 비장애인 배우 3명이 출연했으며, 관객은 공연장 밖에서 안대를한 채이동해 깜깜한 공연장에서 공연을 관람했다. 청각, 시각, 뇌병변, 비장애 배우 4명이 출연한 〈소극장판-타지〉(4월 20일~5월 1일, 강보름 연출) 공연에는 객석과 무대사이에 경사로가 설치됐고, 출입구부터 비상구까지 점자 유도블록이 놓였다. 강보름 연출은 "다양한 사람들이 극장에서만날 때 주요하게 고려해야할 장애물은 무엇인지, 비장애중심 공연예술계에 어떤 감각과 태도가 필요할지 알아보고 싶었다"고 밝혔다.

'장애와 예술'이 주제인 만큼 공연별 특성에 맞춰 배리어프 리를 세심하게 적용했다. 〈소극장판-타지〉는 휠체어석을 6 석으로 확대 운영하고. 〈이것은...〉은 수어가 잘 보이는 1.2 열 좌석을 농인이 우선 예매할 수 있게 했다. 〈커뮤니티 대소 동〉 공연 기간에는 극장과 가까운 지하철역 출구, 버스 정류 소에서부터 이동 지원 서비스를 운영했다. 국립극단은 2022 년 공연하는 작품 3~4편에도 배리어프리 서비스를 제공하 고, 그 범위를 점차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장애인의 날 이 있는 4월 국립극장은 〈소리극 옥이〉에 이은 두 번째 무장 애 공연 〈함께, 봄〉을 올리면서 공연 해설과 수어 통역 외에 도 점자 안내지를 배치하고,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을 위한 사전 예약 셔틀버스를 운행했다. 세종문화회관은 4월 〈천 원의 행복〉 공연에서 농인 배우와 청인 배우가 함께 출연하 는 연극 〈사라지는 사람들〉을 선보였다. 현장에서는 수어 통 역과 음성 해설을 제공했고, 현장 관람이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공연 후 온라인으로도 공개했다.

공공극장에 앞서 배리어프리를 고려해 온 민간 극단으로는 '학전'이 있다. 극단 학전의 어린이 뮤지컬〈슈퍼맨처럼!〉(4월 2일~5월 22일)일요일 공연(격주)에는 수어 통역사가무대 2층에 등장한다. 2008년 초연 이후 2013년 공연에 수어 통역을 1회 제공한 것을 시작으로 재공연 때마다 꾸준히수어 통역을 하고 있다. 배리어프리를 이야기할 때 빼놓을수 없는 극단이 바로 구자혜 작가·연출가가 이끄는 '여기는 당연히, 극장'이다. 2018년 시각장애인 인물이 등장하는 공연〈대성당〉3전 회차에 한글 자막을 제공한 이후 한글 자막,수어 통역,음성 해설을 공연의 일부로 들이는 시도를 하고 있다. 지난해 명동예술극장에서 공연한 신작〈로드킬 인 더씨어터〉에서는 국립극단 최초로 전 회차 문자 통역,수어 통역, 개방형 음성 해설을 제공했다. 작품 기획 단계부터 이를 포함해 창작하고 연습했기에 어찌 보면 '전 회차'는 당연한수순이었다.

필자는 지난 2020년 10월, 잠실창작스튜디오의 '같이 잇는 가치'에서 구자혜 연출의 〈도착되려 하는 언어들〉 공연을 관람한 경험이 있다. 처음에는 낯설었지만 잠시 눈을 감고 해설만 집중해서 듣거나, 연기하는 것과 같은 수어 통역사의 동작을 유심히 지켜보기도 했다. 특히 무대 배경처럼 설치된 한글 자막 스크린은 공연과 하나가 되어 공연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역할을 했다. 구자혜 연출은 "음성 해설, 자막, 수어 통역이 정보의 과잉이라는 우려가 있었는데 오히

^{2 &#}x27;보이는 언어'를 수어(手語, Sign language)라고 하며, 수어를 일상어로 사용하는 사람을 '농인'이라고 한다. '한국수어'는 우리나라 농인들이 사용하는 보이는 언어로, 한국어와는 다른 고유한 형식이 있다. 한국수어는 국립국어원 한국수어사전에서 찾아볼 수 있다. sldict.korean.go.kr/front/main/main.do

³ 구자혜 연출은 "내 집안에 맹인이 있을 수 있다는 걸 나는 전혀 생각해 보지 않았다(A blind man in my house was not something I looked forward to)"라는 원작의 문장을 "이 극장 안에 맹인이 있을 수 있다는 걸 한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다"로 변주한 것이 계기라고 밝혀다.

^{4 [}문화+서울] 2020년 11월호 진실 혹은 대담, <같이 잇는 가치> 오픈포럼 '창작으로의 연대 magazine.sfac.or.kr/html/view.asp?PubDate=202011&CateMasterCd=800





<이것은 어쩌면 실패담, 원래 제목은 인투디언노운(미지의 세계로, 엘사 아님)>(2022) 중

려 관객은 공연을 따라가기가 용이해졌고 주체적으로 선택해서 감각할 수 있다고 한다. 관객이 혼선에 빠지거나 피로도가 높아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각자 알아서 선택해 공연을즐기더라"고 말했다. 4

세심한 적용과 제작 지원 필요

최근의 배리어프리 공연은 좀 더 세심하게, 장애 유형별로 다르게 적용되는 추세다. 먼저 배리어프리가 어떻게 제공되 는지 사전에 상세하게 안내한다. 자막 영상을 송출하는 곳, 수어 통역사가 서 있는 위치에 따라 관람하기 좋은 좌석도 달라지기 때문이다. 시각·청각장애인들에게는 휠체어용 장 애인석이 오히려 불편하다. 시각장애인들은 일반적으로 자 리에서 수신기를 착용하고 음성 해설을 듣는다. 문자 통역 을 폐쇄형으로 제공하는 경우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화면이 관람에 방해가 될 수 있어 뒷좌석에 배치하기도 한다. 장애 유형에 따라 제공할 서비스를 좌석까지 연결해서 고려해야 하는 이유다.

이렇듯 고려해야 할 사항이 한두 가지가 아니기 때문에 제작 초기부터 꼼꼼하게 준비해야 한다. 아무래도 가장 높은 장벽은 비용이다. 음성 해설을 예로 들면 대본 작가, 음성 해설가, 자막 오퍼레이터 등 분야별로 전문 인력이 필요하다. 현재는 비용 문제로 한 사람이 여러 일을 도맡아 하는 경우가 많다. 수어 통역도 현장에서 2명이 번갈아 해야 하고, 공연 당일에 만투입되는 것이 아니라 연습 단계에도 참여한다. 장애 당사자의 의견 수렴 절차도 거쳐야 한다. 관련 전문가는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었지만 공공기관의 교육과정을 통해 조금씩 인력이 배출되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고무적이다.

여러 높은 장벽을 넘어 배리어프리 공연이 더는 화제가 되지 않고, 장애인 배우가 출연하는 공연에만 선택적으로 적용하지 않기를, 배리어프리가 배려가 아닌 필수가 되어 '당연한 것들'로 여겨지는 날이 오기를 바라본다.

글 전민정_객원 편집위원 | **사진** 국립극단





공예작가와 고객을 연결하는 익숙하지만 새로운 지원 방식

아트마켓 <에스스토어S-store>

<에스스토어S-store>는 2021년 4월 롯데백화점 강남점 4층에 조성된 공예·디자인 아트마켓이다. 코로나19 위기에 대처하고 자생 가능한 공예 장르 예술 생태계 구축을 목표로 기획됐다. 신당창작아케이 드 전·현 입주작가 300여 명을 대상으로 분기마다 입점 작가를 선정하고 있으며, 최소 판매 수수료를 제 외한 판매액 전부를 작가에게 전달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새로운 예술지원 방식

문화예술을 지원하는 가장 정석의 방법은 지원금을 창작자에게 직접 전달하는 방식이다. 창작 과정에 필요한 만큼 금전적 원조를 제공한다는 직관성과 오랜 기간 실행하며 다듬어진 운영체제의 안정성은 이미 증명이 끝났다 해도 과언이아니다. 하지만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 관련 예산이 축소되며 통상적 예술지원 방식을 뛰어넘는 지속 가능한 방식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하고 있다. 〈에스스토어S-store〉는 공예 작품의 예술성과 상품성을 바탕으로 고객의 '구매 과정'에서 발생한 수익이 직접 창작 활동에 '투자'되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해 일회성 지원이아닌 공예 장르 작가가 자립할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프로젝트다.

백화점에 간 아트마켓

〈에스스토어〉는 서울문화재단 신당창작아케이드와 롯 데백화점 강남점 간의 MOU(2020년 8월 체결)를 통해

조성됐다. 대형 유통 플랫폼과의 협업을 추진한 가장 큰 이유는 공예작가와 최대한 많은 소비자를 연결하기 위함 으로, 긴 운영 시간과 편리한 접근성을 바탕으로 판매뿐 아니라 신당창작아케이드 전·현 작가의 작품을 선보일 수 있는 '전시장'의 역할에도 중점을 뒀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에스스토어〉만을 위한 매장 디자인부터 입점 작가 선정 방식, 상품 배치, 고객 이동 동선 등 하나부터 열까 지 새로운 방식으로 매장을 채웠다. 그 밖에 판매 시 발생 하는 최소 수수료를 제외한 전액을 입점 작가에게 전달 해 최소한의 비용으로 최대한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설계했다. 미술 작품을 거래하는 갤러리나 화랑의 작품 판매 수수료가 대개 50% 내외인 것을 감안할 때. 이는 공 공기관이기에 가능한 파격적 혜택이다. 이 원칙은 매장 을 개장한 순간부터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으며, 지금도 입점 작가의 높은 만족도를 이끌어내는 일등 공신 역할 을 하고 있다.



같으면서 또 다르게

상설 아트마켓으로서 다른 예술지원 사업과 차별화된 특징은 수시로 바꿀 수 있는 유연한 운영 방식을 채택했다는 점이다. 일반적인 백화점 매장은 계절과 기념일에 따라 매장을 구성하는 품목, 배치, 내부 장식 등을 수시로 바꾸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대량생산 과정을 거쳐 여유롭게 재고를 쌓아둘 수 있다면 이것이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하나하나작가의 손을 거쳐야 완성되는 공예품의 경우 이러한 운영 방식은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기계화 대량생산 방식으로 생산된 공예품 위주로 입점하는 것은 〈에스스토어〉의 기획 의도와 맞지 않기에 깊은 고민과 여러 시행착오를 거쳐 해결책을 모색했다.

우선 마켓의 운영 인력이 작가와 직접 소통할 수 있도록 연결하는 데 힘썼다. 카탈로그에 기재된 제한된 정보만을 갖

고 판매하는 방식은 분명 안정적이지만 공예품과 공산품의 근본적 차이인 '독창성'을 구매자에게 전달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현장에서 판매를 주도하는 직원이 직접 작가에게 궁금한 점을 묻고 고객의 요구 사항을 전달하는 동시에 이에 답하고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것을 입점 작가의 중요한 의무로 정했다. 이를 통해 작가는 대중의 의중을 파악하기에 용이하고, 고객은 자신이 구매하는 것이 n번째 '기성품'이 아닌 작가의 '컬렉션'이라는 특별한 경험을 체험할수있다. 다음으로 공예품의 제작 과정을 구매자가 알 수 있도록 매월 두 명의 작가를 '이달의 작가'로 선정해 기존에 입고된 상품이 아닌 별도의 작품을 매장 내에 전시하고 있다. 본인이 구매하는 공예품을 제작한 작가가 어떤 재료적 특성과기술적 공정을 거쳤는지 자연스럽게 보여줌으로써 공산품을 구매했을 때와 다른 색다른 매력을 느낄 수 있는 것이다.



누구를 위해 문을 열었는가

2009년 신당창작아케이드가 처음 문을 연 이래로 현재까지 300여 명의 전·현 작가가 거쳐 가거나 입주해 있다. 서두에서 말한 지속 가능한 예술지원 사업을 위해 현재 입주해 있는 예술가뿐 아니라 이곳에 발을 들였던 모든 예술가를 대상으로 기획해 입점 작가 모집 홍보에서부터 선정, 입고, 정산 등의 전 과정에서 현 입주작가와 전 입주작가의 차이를 두지 않고 있다.

1년이 지나 알게 된 것

〈에스스토어〉를 개장한 데에는 여러 이유가 있지만 실행의 직접적 계기가 된 것은 코로나19의 장기화였다. 모두가 힘 든 시간을 보냈고, 또 보내고 있지만 유난히 예술계만큼은 방역 지침이 완화되고 있음에도 아직 겨울바람이 불고 있 다. 〈에스스토어〉는 어떻게 이 겨울을 나야 할지에 대한 나 름의 대답이다. 다만 실험적 수준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처음 시도하는 것이라도 실효성 있는 프로그램으로 공예작 가에게 도움이 되는 데 집중했다. 여기에 경제적 이익에 그 치지 않고 작가 스스로 자립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찾을 수 있는 기회(구매자와의 직접 소통, 유통 전문가 멘토링, 온 ·오프라인 작품 노출 등)를 더했다. 개점한지 1년이 지난지 금. 정답을 찾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지금까지의 선택에서 나아가야 할 방향은 분명히 알 수 있었다. 공예는 작품인 동 시에 상품으로서 시장에서 자생할 수 있으며, 여기에 필요 한 것은 햇볕이 잘 드는, 그래서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양지 바른 '광장'이라는 사실이다. 앞으로도 꾸준히 공예를 위한 광장이 계속 늘어나 많은 이들의 온기가 모여 봄바람이 되 는 날이 오기를 간절히 바란다.

글 박도욱_서울문화재단 신당창작아케이드 | **사진** 서울문화재단, 한세리, 황지혜







황지혜 (현업주작가) 12~13기)

Q 전 혹은 현 입주작가로서 <에스스토어S-store>에 참여해서 무 엇을 얻을 수 있었나요?

한세리 "사실상 레지던시 프로그램들의 시간이 한정적이다 보니입주 이후의 작가 활동까지 지원받기란 어렵습니다. 하지만 <에스스토어>는 전 입주작가까지 입점 신청을 할 수 있었는데, 참여하면서 후속 지원을 받는 것의 일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또한 현 입주작가님들과 오며 가며 교류할 수 있었던 것 또한 이 사업의 좋은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입점해 있는 동안 작품에 대한 다양한 피드백을 얻을 수 있었고, 전시장이 아닌 백화점이라는 공간에 전시됐을 때 작품이 어떻게 해석되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황지혜 "오브제 작업을 주로 해온 저에게 <에스스토어> 입점은 상품을 제작해 소비자와 거리를 줄이고 다채로운 작업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됐습니다. 저만의 유닛을 접목한 상품의 가능성, 대중성을 알게 됐습니다. 또한 적은 판매 수수료, 백화점이라는 유동인구가 많은 차별적 공간은 공예가들에게 지속 가능한 성장 원동력이될 것입니다."

에스스토어

주소 서울시 강남구 도곡로 401 4층 롯데백화점 강남점 문의 02-2232-8834 누리집 www.sfac.or.kr





रेखर ४६५५। देश सर

반도네오니스트고상지

— "실수를 하면스텝이 엉키게 되는데 그게 바로 탱고입니다." 영화 〈여인의 향기〉(1992)에서 퇴역 장교인 주인공(알 파치노)은 식당에서 처음 만난 여인에게 이런 말을 건넸다. 그리고 그녀와 멋지게 탱고를 춘다. 그는 시력을 잃어 앞이 보이지 않는데도 말이다. 탱고가 가지고 있는 본연의 즉흥적 자유로움을 보여주는 명장면이다. 이때 배경음악으로 흐른 카를로스 가르델의 '포르 우나 카베사Por una cabeza'는 시간이 흘러도 그 감동이 퇴색되지 않는 불후의 탱고 명곡이다.

탱고에 대해 말할 때 빠뜨릴 수 없는 거장이 있다. 탱고에 클래식과 재즈를 결합한 독특한 스타일의 음악으로 아르헨티나식 탱고 음악 '누에보 탱고'를 만드는 데 주력해 온 아스토르 피아졸라다. 그는 '리베르탱고Libertango' '아디오스 노니노Adiós nonino' '오블리비언Oblivion' 등의 곡을 통해 국경을 막론하고 '탱고의 전설' '탱고의 황제'로 불린다. 2021년은 피아졸라 탄생 100주년이었기에 그의 음악을 들을 수 있는 크고 작은 자리가 많았다.

탱고, 영화 〈여인의 향기〉, 아스토르 피아졸라. 탱고에 관심이 있거나 탱고 음악을 검색해서 들어본 사람이라면 이쯤에서 직관적으로 또 한 사람을 떠올릴 확률이 높다. 바로 고상지다. 단정하면서도 카리스마 넘치는 그의 매력이 여과 없이 발휘되는 장르 또한 탱고 음악이기 때문이다. '탱고의 영혼' '탱고의 심장'으로 통하는 '반도네온Bandoneón' 을 연주

하는 그의 모습을 보고 있으면 무언가에 흠뻑 빠져 있는 사람에게서 느낄 수 있는 뜨거운 에너지가 전해진다.

탱고 음악에서 발견한 게임의 감각

고상지는 어쩌다 반도네오니스트가 됐을까? 왜 탱고 음악이었을까? 대답은 의외의 영역에서 나온다. 바로 '애니메이션'과 '게임'이다. "게임을 할 때 나오는 BGM이 항상 저를 흥분하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애니메이션의 OST를 들으며 길을 걷고 있으면 제가 정말 용사가 되어 모험을 떠나거나 하늘을 날아가는 기분이 들곤 했죠. 그건 지금도 마찬가지고

¹ 독일의 카를 프리드리히 울리히가 만든 독일식 콘체르티나를 기반으로 하인리히 반트가음을 추가하고 일부 개량해 자신의 이름을 따서 명명한 악기이다. 연주하기가 까다롭고 난해해서 '악마의 악기'로 통한다. 양손으로 주름상자 측면의 70여 개 건반(버튼)을 누르면서 140여 개의 음을 낸다.





요." 그는 피아졸라의 음악을 들으면서 게임 속 전투 음악을 떠올렸다.

TV에서 방영한 애니메이션〈아벨탐험대〉이야기도 빠뜨릴 수 없다. "〈아벨탐험대〉가 제가 어릴 때 엄청 몰두했던 게임〈드래곤 퀘스트〉시리즈 중 하나거든요. OST 전부 제가 어릴 때부터 알고 좋아한 곡들인데 뭔가 사운드가 달랐어요. 어릴 때 들었던 그 사운드가 아닌 거예요. '편곡'을 한 거죠." 그렇게 악기와 편곡의 세계에 자연스럽게 관심을 갖게 됐고, 이후〈신비한 바다의 나디아〉〈에반게리온〉등의 작품에서는 BGM을 통한 애니메이션 연출에도 흥미를 느끼게 됐다.

평소 음악에 대한 열망과 음악가에 대한 동경이 있었다. 그리고 종종 작곡과 편곡을 하면서 음악가로서의 삶을 상상해보기도 했다. 그러다 절호의 기회로 반도네온을 손에 넣으면서, 그의 인생은 흔한 비유로 '180도' 달라졌다. 당시 카이

스트 토목공학과에 재학 중이었는데 전공과 진로에 큰 흥미와 기대가 없었다. 음악에 관심은 있었지만 모든 것을 오직음악에만 걸기에는 불확실성이 너무 커 선뜻 실행에 옮기지못하는 상황에서, 탱고 음악과 반도네온을 만나면서 이른바 '틈새시장'을 본 것이다.

대학을 자퇴하고 반도네온을 선택한 것은 용기이기도 했지 만 자신의 것이 아닌 것에 대한 내려놓음이자 순응이기도

게임을 할 때 나오는 BGM이 항상 저를 흥분하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애니메이션의 OST를 들으며 길을 걷고 있으면 제가 정말 용사가 되어 모험을 떠나고 하늘을 나는 기분이 들곤 했죠.
그건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했다. 싫어하는 건 절대 못 하는 성격도 결정에 도움이 됐다. 이렇게 커다란 흐름만 보면 마치 인생의 판도가 공학도에서 음악가로 운명처럼 바뀐 것 같다. 하지만 세상 이치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다. 스스로 판단하기를 "타고난 음악적 재능이 없다"고 여기는 그에게는 탱고 음악과 반도네온을 선택한 이후의 모든 여정은 무슨 일이 일어날지 예측할 수 없는 도전과 모험의 연속이었다.

네모난 주름상자를 들고 국경을 넘다

2006년 가을, 길거리 공연으로 출발했다. 대학 재학 중 메탈 밴드부에서 일렉베이스 기타를 연주한 경험을 기반으로 반도네온 음계와 코드를 겨우 익혀 어설프게나마 대전 충남대와 카이스트 사이의 번화가에서 버스킹을 하기 시작했다. 일종의 초석을 쌓아가는 시간이었던 만큼 그 시간은 그를 설레게 했다. 그리고 또 그만큼 그를 아프게도 했다. 날것그대로의 경험 앞에서 수시로 자신의 민낯과 마주해야 했기 때문이다. 공연을 하면 할수록 음악이라는 위대한 세계 앞에서 깊은 우울감과 좌절감을 느꼈다.

하지만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리의 악사로, 반도네오니스트로, 꾸준히 자신만의 이력을 쌓아가던 그에게 행운의 편지 한 통이 도착한다. 그의거리 공연을 인상 깊게 본 어느 행인이 일본의 최정상급 반도네오니스트인 고마쓰 료타에게 그의 존재를 알린 것이다. 이후 고마쓰 료타에게서 거짓말처럼 응원의 메일이 왔고, 그는 절호의 기회를 놓치지 않고 고마쓰 료타에게 "반도네온을 배우고 싶다"고 조심스레 제안했다.

그렇게 3개월마다 일본을 찾아가 2주 동안 머무르며 반도네 온을 배웠다. 그 시간이 3년이다. "처음 도쿄에 갔을 때 선생 님께서 정말 다정하게 맞이해 주셨어요. 선생님을 통해 알 게 된 탱고 음악을 하는 사람들이 모두 착하고, 또 연주도 잘 하면서 성실한 분들이라 정말 즐겁게 배울 수 있었죠. 물론



사람들이 즐겨 듣는 음악을 하고 싶어요. 내 모든 것을 쏟아부어 내가 만족해도 사람들이 듣지 않는 음악은 이제 하고 싶지 않아요.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좀 들어줄까?'를 생각하며 다음 음반을 계획하고 있어요.

공부하면서 힘들고 자괴감에 빠질 때도 있었는데 그때마다라멘이나 덮밥 같은, 24시간 언제든지 먹을 수 있는 음식을 먹으면서 그 시간마저 행복하게 보냈어요.(웃음)"반면, 이후 2년의 아르헨티나 유학 생활을 이야기할 때는 힘든 기억부터 소환한다. "암흑기였다고 해야 하나. 편의시설

같은 도시의 시스템에 익숙하던 제가 부에노스아이레스 같은 곳에 가니 모든 게 힘들더라고요. 강도에게 크게 당하고 충격을 받아 열흘 가까이 집 밖에 못 나간 적도 있어요." 그 럼에도 좋았던 기억에 대해 묻자 곧장 음악 이야기를 들려준다. "거장들의 연주를 일주일에 2~3번 정도로 자주, 그것도 저렴한 가격에 들을 수 있었다는 점, 그들에게 직접 악기를 배울 수 있다는 점은 정말 좋았어요. 아, 또 하나. 메디아루나(아르헨티나 크루아상)가 맛있다는 것도!"

사람들이 즐겨 듣는 음악을 하고 싶다

그렇게 탱고 음악과 반도네온을 공부하고 연주하며 반도네 오니스트이자 작곡가로서의 재량을 키워나간 고상지. 본인 스스로는 준비되어 있지 않다고 생각해도 삶이 그를 준비시 켰다. 이전부터 인연이 있었던 가수 하림의 소개로 김동률 5 집 앨범 발매 콘서트의 반도네온 세션 기회가 찾아왔다. 그 리고 그 자리를 통해 정재형과도 인연을 맺게 됐으며 이후 윤상, 이적, 유희열 등 다양한 뮤지션의 작품과 공연에 세션 으로 참여했다. 2011년 MBC 〈무한도전〉에서 반도네온 반 주를 맡고 나서는 대중적 인지도도 올라갔다.

방송 세션이나 협연 등의 기회가 많아 얼굴이 알려진 덕분인지 많은 사람이 그를 국내 유일의 반도네오니스트, 최초반도네오니스트, 최고 반도네오니스트라고 불렀다. 그런 반응을 그저 즐길 법도 한데 그는 "좀 오해가 있다"며 애써 정정한다. "다양한 연주자들이 누에보 탱고, 고전 탱고 등에서심도 있는 활동을 하고 있고, 저보다 더 다양한 활동을 하고 계신 분도 많아요. 연주는 저보다 잘하는 사람도 많고요. 저는 반도네온 연주 자체보다는 작곡과 편곡에 더 흥미가 있어서 그부분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어요."

고상지의 음악을 이야기할 때 빠뜨릴 수 없는 사람들이 있다. 바로 '고상지 밴드'다. 공연의 성격에 맞게 연주자를 섭외해 진행하는데 경우에 따라 고상지 트리오가 되기도, 콰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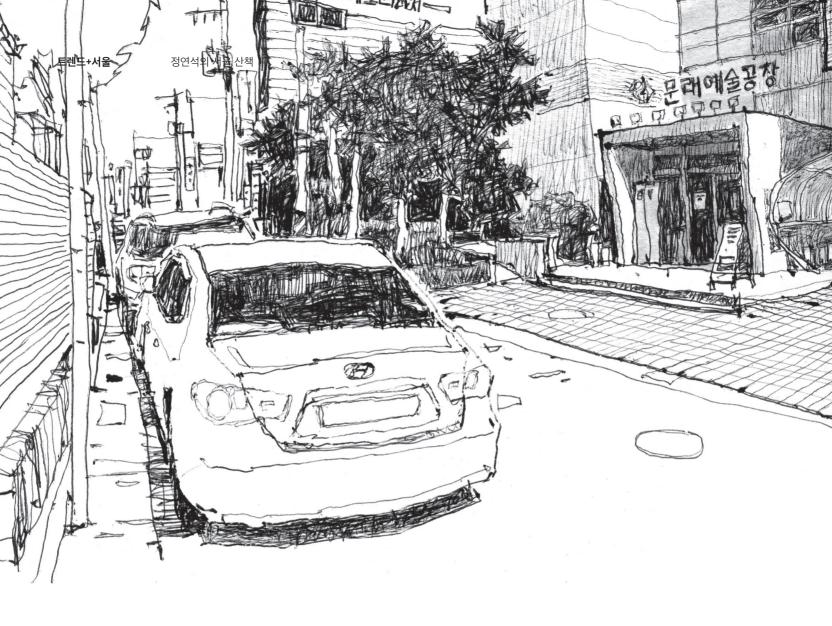
텟이 되기도, 오케스트라가 되기도 한다. "정말 고마운 친구들이죠. 음악을 업으로 삼기 전인 20대 초반에 좋아하는 뮤지션의 공연을 찾아다니며 적극적으로 선물 주고 어필하던 때가 있었는데요.(웃음) 우리 밴드 친구들은 아마 제가 음악을 안 했으면 계속 따라다녔을 그런 존재들이에요. 좋은 사람들과 함께 음악을 할수 있다는 것이 꿈만 같아요."

최근 준비 중인 작업으로는 그가 작곡한 곡들을 피아니스트 조영훈이 피아노 솔로로 연주하는 〈피아노 소곡집〉 앨범 발매, 존경하는 작곡가의 곡을 편곡한 〈존경을 담아〉 프로젝트, 그리고 미발표 자작곡들 녹음 등이 있다. 반도네온과 함께한 지 16년, 그 성취를 인정받아 지난해 대한민국 대중문화예술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표창을 받은 고상지는 이제어떤 음악을 만들고 싶어 할까? "사람들이 즐겨 듣는 음악을하고 싶어요. 내모든 것을 쏟아부어 내가 만족해도 사람들이 듣지 않는 음악은 이제 하고 싶지 않아요. '이렇게 하면사람들이 좀 들어줄까?'를 생각하며 다음 음반을 계획하고 있어요."

모종의 미련이나 후회가 느껴지지 않는 대답이다. 내가 하고 싶은 음악을 원 없이 해본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대답. 좀더 과장해서 말하면, 마음의 코드를 따서 스스로 만족할 때까지 자신만의 연주를 실컷 해본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대답. 인생의 축복에 대해서는 "반려묘 바니를 만난 것"이라 답하고, 하루의 낙에 대해서는 "여러 맛의 커피 원두를 분쇄해 내려 마시는 것"이라고 답한다. 이상형은 없으나 굳이 말한다면 "자신감 넘치는 사람보다는 자신감이라는 것 자체를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이 좋다고 한다. 그의 대답은 마지막까지 의외의 역역에서 나온다

그래서 더 궁금해졌다. 앞으로 어떻게 살고 싶을까? "나중에 마당이 있는 주택으로 이사하게 된다면 안락사 직전의 유기 동물을 임시 보호하면서 살고 싶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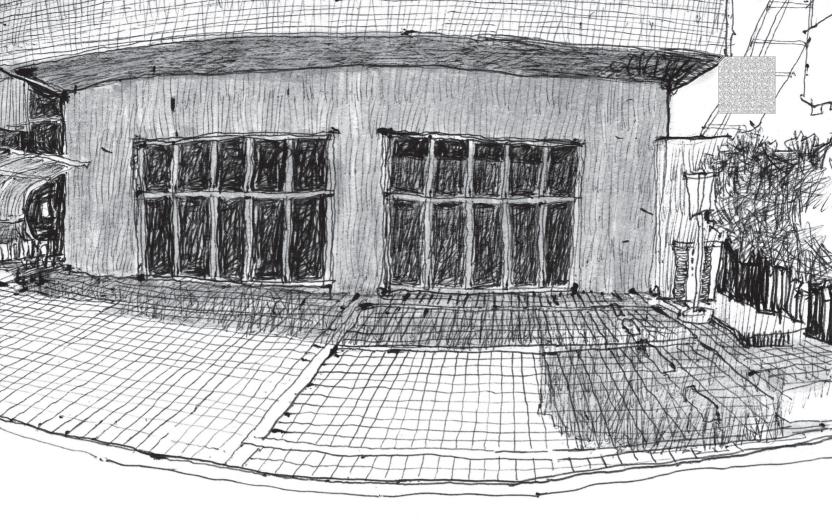
글 장보영_객원 기자 | **사진 제공** 프라이빗커브, 제이에스바흐 프로덕션



산업의 골목에서 문화의 골목까지, 문래동

문래예술공장

문래예술공장은 2010년에 개관했다. 문래동 철공소 거리의 옛 철재상가 자리에 '예술 공장'이라는 재미있는 타이틀의 창작공간이 들어선 이유는 이곳 문래동에 철을 깎고 용접하 고 구부리는 작은 공장, 그리고 예술가들이 활동하는 문래창작촌이 공존하는 데 있다. 일제 강점기부터 공장지대였던 영등포의 지역적 정체성을 고스란히 간직한 채 예술 창작 활동의 전초기지 같은 역할을 하는 곳이 이곳 문래예술공장인 셈이다.



문래예술공장은 장르의 경계를 넘어 동시대의 자유로운 실험예술을 지원하는 공간으로 음악·사운드아트 등 다양한 분야의 국내외 창작자, 기획자, 비평가들을 발굴하고 지원한다. 구로세무서 바로 뒤편, 영등포화교소학교 옆에 자리 잡은 문래예술공장을 방문한 4월 중순에는 1층의 갤러리M30에서 〈고요한 반항(Silent Rebellion)〉이라는 제목의 사진 전시가 열리고 있었다. 문래예술 공장에는 갤러리 외에도 2층의 박스씨어터, 3층의 포켓갤러리·녹음실·영상편집실·회의실, 4층 세미나실·예술가 호스텔 등의 시설이 있다.

문래예술공장의 주요 사업은 데뷔 10년 이하의 예술가 및 단체를 지원하는 '비넥스트BENXT', 음악·사운드아트 분야의 특화 사업인 '사운즈 온Sounds On' 등으로 구성돼 있다. 문래예술공장이 보유한 창작 발표 공간을 활용해 예술인과 예술단체의 연습, 리허설, 발표까지 원스톱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할 뿐만 아니라 멘토링, 워크숍, 세미나, 공유회 등 창작 역량 강화와 작품 개발을 위한 프

로그램을 함께 운영한다.

철공소와 창작촌의 독특한 공존

오랜만에 문래동을 찾았다. 나는 몇 년 전 이곳 문래동의 아파트형 공장에 있는 사무실의 한쪽 구석을 얻어 친구와 건축설계사무소를 운영한 적이 있다. 일이 늘 바쁜 것은 아니어서 여유가 좀 있는 별 좋은 오후가 되면 일없이 문래동의 철공소 골목을 어슬렁거리곤 했다. 그때의 기억이 가물가물해질 무렵, 문래동 골목을 다시 찾았다. 문래역 7번 출구를 나와 며칠 사이 몰라보게 따뜻해진길을 걸었다. 끝날 것 같지 않던 겨울의 매섭던 바람은 어느새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작은 벚꽃 잎들은 살랑거리는 봄바람에 이리저리 흔들리면서 땅으로 살포시 내려앉고 있었다. 그리고 너무나도 낯익은 골목 풍경이 눈앞에 펼쳐졌다. 문래동 철공소 골목, 사람들은 이곳을 '문래창작촌'이라고도 부른다.

예술적 감수성이 충만한 거리 풍경을 기대하고 문래창작촌을 처



문래창작촌이라는 이름과는 도무지 어울리지 않는, 기름 냄새와 용접 불꽃이 난무한 '체험, 삶의 현장'과도 같은 분위기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곳은 거대 지 않았던 곳에서 울긋불긋한 벽화와 독특한 철제 조형물이 불쑥불쑥 나타나 는 '창작촌'이기도 하다. 문래동 철공소 골목에 늘어선 건물 2,3층에는 저렴한 임대료 덕분에 찾아온 예술가들의 공간이 있고, 1층에는 철판을 구부리고 자 르고 용접하는 철공소가 있다.

예전 방림방적 자리에 들어선 아파트형 공장의 사무실과 철공소 골목이 바로 지척이었던 관계로 나는 이곳을 수시로 드나들었다. 점심시간을 이용하거나. 일찍 퇴근하는 날에 일부러 빙 돌아 철공소 골목을 지나 지하철역으로 가곤 했다. 금속 장인들의 끈적한 땀 냄새가 가득한 골목에는 이곳과는 전혀 어울 리지 않을 것 같은 색다른 느낌의 카페나 식당이 숨어 있었다. 너무나도 다른, 공존이 어려워 보이는 두 개의 영역이 어깨를 붙이고 같은 골목을 공유하고 있었다. 이렇게나 생뚱맞은 조합이 극적으로 어울리는 곳이 바로 문래동이다.



기술과 예술의 상호 존중

문래동의 철공소 장인들은 이곳의 변화에는 전혀 관심이 없다는 표정으로 묵묵히 자신의 일에 집중하고 있었다. 하는 일도, 생각도 다른 기술자들과 예술가들이 공존하는 방식에는 서로의 일과 삶에 대한 존중과 이해가 우선돼야 한다. 그것은 취사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이곳 문래창작촌이 지속하기 위한 필수조건이기 때문이다. 봄볕이 따뜻한 4월의 월요일 오후, 문래동의 작은 공장 사이로 색다른 느낌의 몇몇 식당이 원래부터 거기에 있었던 것처럼 자연스럽게 자리하고 있었다.

문래창작촌을 나와 문래공원 교차로를 대각선으로 가로질러 가면사람들이 '오백채마을'이라고 부르는 오래된 골목이 나타난다. 1940년대 일제강점기, 전쟁의 병참기지 역할을 했던 영등포 공장지대에 노동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서 조선주택영단(대한주택공사 전신)이 대규모로 지은 영단주택이 500채나 됐다고

해서 붙은 이름이다. 지금은 시간이 많이 흘러 고치고 덧대고 용도가 바뀌어 예전의 흔적을 확인하기가 쉽지 않다. 하지만 위에서 내려다보면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조성된 바둑판 같은 길을 품은 키 작은 마을이 주변의 아파트단지에 둘러싸여 흡사 섬처럼 남아 있는 모습을 고스란히 확인할 수 있다.

문래동의 많은 대형 공장은 지금은 거의 다 사라지고 아파트단지, 아파트형 공장, 대형마트, 오피스텔로 바뀌었다. 하지만 여전히 문래동의 골목에서는 지나간 시간의 흔적을 어렵사리 찾을 수있다. 문래동의 골목은 한국 현대사를 관통하는 시간의 골목이다. 개발 시대에 한국의 2차산업을 책임졌던 산업의 골목이고, 21세기 도시의 부활을 이끄는 현재진행형인 문화의 골목이다. 이번 주말, 문래동 골목에서 분위기 좋은 카페와 맛집도 탐방하고 시간의흔적도 찾아보는 여행을 해보는 것 어떨까?

글·그림 정연석_《서울을 걷다》 저자





봄처럼 찾아온 창작 초연극

뮤지컬 <쇼맨_어느 독재자의 네 번째 대역배우>와 <렛미플라이>

2020년 2월 시작된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공연계는 여러 차례 위기를 맞았다. 객석 간 거리두기로 티켓 판매 수익이 현저히 줄었고, 출연진 및 스태프의 대거 확진으로 조기 폐막한 경우도 부지기수다. 팬데믹 3년 차인 올봄에는 국내 창작 공연 초연 소식이 잇따라 들려온다. 시린 계절을 지나 싹을 틔우듯 공연계도 활력을 되찾고 있다.

현대사회의 쇼맨들에게 건네는 위로

<쇼맨_어느 독재자의 네 번째 대역배우> | 4.1~5.15 | 국립정동극장

국립정동극장에서 지난 4월 막을 올린 <쇼맨_어느 독재자의 네 번째 대역배우>(이하 <쇼맨>)는 사회 안에서 주체성을 상실한 개인의 이야기를 그린 블랙코미디 작품이다. 극을 이끌어가는 '네불라nebula'는 파라디수스 공화국의 독재자 미토스의 네 번째 대역배우다. 내전과 독재, 민주화 혁명을 거치며 어느덧 평범한 70대 노인으로 살아가던 그는 우연히만난 한국계 입양아 '수아'를 사진작가로 오해해 촬영을 의뢰한다.

뮤지컬 <쇼맨>은 개인이 사회 안에서 얼마나 주체적일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서 시작됐다. 독재자의 대역배우라는 설정은 캐릭터를 쉽게 비난할 여지를 준다. 그러나 이야기가 전개될수록 절대선과 악의 경계는 흐릿해진다. 네불라와 수아 모두 사회적 욕망을 개인의 욕망으로 착각해역할을 수행했을 뿐이다. 세상의 기준에 맞춰 스스로를 재단하고 있지는 않은지, 더 나아가 세상의 부조리 앞에서 온전히 바로 설 수 있는지, 극은 끊임없이 관객에게 질문을 던진다.



< 소만>은 한정석 작가, 이선영 작곡가, 박소영 연출이 의기투합한 세 번째 작품이다. 첫 작품 <여신님이 보고 계셔>는 2013년 초연 이후 여섯시즌 동안 무대에 오르며 대표적 창작 뮤지컬로 자리 잡았다. 2018년 공개된 <레드북>에서는 야한 소설을 집필하는 캐릭터 안나를 통해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표현하는 삶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앞선 두 작품으로 대중과 평단 모두의 호평을 이끌어낸 세 창작진의 한층 예리해진, 그러나 여전히 따뜻한 시선을 만날 차례다.

평범한 오늘 시작된 특별한 시간 여행

<렛미플라이> | 3.22~6.12 | 예스24스테이지 1관

우란문화재단의 '우란이상 공연예술개발 프로그램'에 선정된 <렛미플라이>가 트라이아웃 공연 후 2년 만에 정식 초연으로 돌아왔다. <차미><명동로망스> 등 우리 주변에 있을 법한 평범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선보인 조민형 작가와 <빨래> <랭보> 등 작품으로 대학로 관객들을 꾸준히 만나온 민찬홍 작곡가의 신작이다.

1969년 어느 밤, 패션 디자이너를 꿈꾸는 '남원'은 한 통의 편지를 받고 사랑하는 '정분'과 함께 서울에 갈 약속을 하며 헤어진다. 그 순간 점점 커지는 달을 보며 남원은 쓰러지는데, 눈을 떠보니 2020년이 돼 있다. 그를 잘 안다는 할머니 '선희'의 도움으로 남원은 2020년에 적응해 나가 지만 정분이가 있는 1969년으로 돌아가기 위한 고군분투를 멈추지 않 는다.

<렛미플라이>의 주인공들은 특별함을 내세우지 않는다. 그들의 선택에 가장 크게 영향을 끼치는 요인은 꿈과 사랑이다. 주제부터 인물 설정까지 지극히 평범하지만 그래서 더 울림을 준다. 각 인물들이 처한 상황에 이입하다 보면 자연스레 일상의 소중함을 깨닫게 된다.

지난 4월까지 코로나19로 인해 박수 외의 호응이 제한됐음에도 불구하고 객석에서는 웃음소리와 발 구르는 소리가 끊임없이 터져 나왔다. 배우 네 명은 2시간가량 극을 오롯이 끌고 가며 관객을 웃기기도, 울리기도 한다. R&B, 힙합, 재즈, 어쿠스틱 등 장르를 넘나드는 넘버도 <렛미플라이>만의 매력이다.

글 연재인_서울문화재단 홍보IT팀 | **사진 제공** 국립정동극장, 프로스랩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쁜 삶', 고수들이 발견하고 발명한 기쁨의 리스트

책 《사소한 기쁨》과 《가드너의 일》

한 가지 일을 오래 해온 사람들에게는 어떤 특별함이 있을까. 인내심이 강하고 책임감이 클까, 아니면 어떤 특출난 능력이 있을까. 물론 그럴 수도 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그 일을 좋아했기 때문 아닐까. 또 반복되는 일상을 즐거움으로 채울 줄 알고, 무엇보다 삶의 '기쁨'이 어디에서 오는지 터득한 게 아닐까. 이것이야말로 이들이 숨겨둔 진짜 특별한 능력일 터. 이들이 발견하고 또 발명한 '삶의 기술'이 담긴 두 권의 책을 소개한다. 30여년 글쓰기 노동자로 살며 깨달은 '작은 것'들의 힘에 대해 말하는 《사소한기쁨》(현암사)과 20년 차 가드너가 정원에서 일하며 보낸 시간을 풀어낸 《가드너의 일》(날)이다. 어딘지 제목부터, 벌써 다정하지 않은가.





《사소한 기쁨》| 최현미 지음 | 현암사

"만약 누군가 엄청난 연봉을 줄 테니 그 대신 사소한 기쁨들을 내놓으라고 한다면, 고민은 좀 해보겠지만 결국 거절할 것 같다."

고민을 왜 하냐고 반문할지 모르겠다. 엄청난 연봉으로 더 큰 기쁨들을 사면 되지, '사소한' 기쁨 몇 개쯤 내어주는 일이 뭐 어렵냐고 말이다. 그러나 그 기쁨의 정체를 한번 보자. 이른 출근길을 비추는 새벽달, 하루를 깨우는 커피 한 잔, 하소연과 위로가 오가는 수다, 일을 끝내고 좋아하는 사람들과 마시는 시원한 맥주…. 연봉이 많건 적건, 우리 일상은 대부분 반복적이고, 점점 큰 목표나 거창한 변화에서도 멀어진다. 그리고 삶은 결국 이렇게 '사소한' 것들로 지탱된다.

일간지 기자로 30년. 오랜 시간 문화부 기자로 일해 온 저자가 매일 조금씩 건져 올린 그 사소한 것들, 작지만 반짝이는 것들을 조심스레 꺼내어 놨다. 커피, 산책, 독서, 수다 등 책에 실린 리스트는 누구나 좋아할만한 것들이지만, 저자는 '좋음'을 '기쁨'의 차원으로 끌어올린다. 평범함을 특별함으로 만드는 것이다. 그것은 수많은 책과 영화, 음악과 함께한 '덕업일치'의 삶이 가져다준 다정한 능력이며, '좋다'는 말밖에 하지못하는 다른 에세이들과 이 책을 구분 짓는 가장 큰 미덕이다.

저자는 피곤한 새벽 출근길에 뜬 달을 보고는 무라카미 하루키의 《1Q84》속 두 주인공을 지켜보던 달을 떠올린다. "나의 출근길을 함께 하는 새벽달은 여전히 신비한 신화이고 수백만 년을 이어온 전설이다. 덴고와 아오마메가 사랑을 맹세했듯 기도와 맹세, 그리고 약속의 대상이다." 끝없이 돌아가는 대관람차 앞에서는 《배를 엮다》속 성실한 사전편집자의 마음을 파고든다. "나의 페이스를 잃지 않고 나름의 최선을 다해 나의 삶을 쌓아가는 것이다. 유유히 돌아가는 관람차처럼 담담하고 단단하게." 또 스티븐 킹의 《고도에서》를 읽고 마음 맞는 사람들과 나누



는 수다가 얼마나 소중한지 곱씹고, 애니 프루의 《시핑 뉴스》를 통해 인생의 숱한 '해피엔딩'에 대해 생각한다. "기쁨과 행복만이 계속되는 인생이란 없고, 불행이 함께하는 속에서도 행복할 수 있다"고.

저자는 이 기쁨들을 '발견'했다고 하지만 어느 날 갑자기는 아니다. 오르락내리락하는 마음을 다독이고, 하루를 차곡차곡 쌓으며 '발명'한 것일 터. 작지만 크고, 흔하지만 귀한, 저자의 발명품 '기쁨들의 리스트'를 가만히 들여다보자면 쓸데없다 생각했던 많은 일이 얼마나 쓸데 있는 것인지, 사소해 보였던 모든 것이 결코 사소하지 않았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그리고 우리는 다시 내려올 것을 알면서도 중력을 딛고 상승하는 대관람차처럼, 곧 시들해질 것을 예감하며 시작하는 새로운 취미처럼,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을 게 분명한 내일을 위해 눈 감는 오늘 밤처럼, 그렇게 지금을 살고 순간과 순간을 잇는다. 아무도 뭐라 할 수 없고 누가 뭐라 한들 상관없는 '나만의 해피엔당'을 향해.



《가드너의 일》| 박원순 지음 | 날

"연꽃은 아름답지만 그 아름다움을 위해 가드너들은 뒤에서 온갖 궂은 일을 해내야 한다. 그중 가장 고역스러운 일이 연못 바닥에 가라앉아 있 는 오니를 제거하는 것이다."

식물 덕후였던 저자는 제주도 신혼여행 중 식물원에서 만난 빅토리아수 련에 반해 직업을 바꾼다. 출판 편집자에서 가드너로. 그러나 그때까지 만 해도 몰랐다. 아름다운 연꽃을 피어내기 위해, 연못 바닥의 더러운 진 흙을 제거하러 물속에 빠져야 한다는 사실을. 그리고 꽃과 나무에 둘러 싸인 우아하고 고상한 일이 아니라는 것도. 책은 대부분의 일은 꽃이 아 닌 흙을 만지고, 자갈을 깔고, 철물점도 수시로 드나들어야 하는 고되고 궂은 노동자로서의 정원사를 오롯이 보여준다. 그래도 20여 년을 해올 수 있었다. 좋고, 즐거우니까. 무엇보다 '기쁨'이 있으니까.

사계절로 구성된 책에서는 가드너들이 1년 동안 정원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 그 속에서 어떤 마음을 품고, 또 어떤 자세로 일과 삶을 바라보는지 자세하게 설명한다. 저자는 "가드너의 기본 임무는 흙에서 식물을 길러 내는 것"이라며, 육체노동도 많지만 정원 디자인 같은 고도의 집중력이 필요한 정신노동도 중요하다고 말한다. 1년간 하는 일을 '최소 365가지 이상'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바쁘게 지낸다. 그래도 원동력은 늘 새롭게 식물을 만나고 가꾸며 돌볼 수 있다는 것. 싹을 틔우는 것을 보고, 자라나는 것을 보며, 떨어지는 꽃잎을 보고, 지고 사라져가는 것들도 본다. 이를통해 정원사들은 궁극적으로 생명력을 부여하는 '자연'의 경이로움을 거듭 되새긴다. 식물들은 신에게서 왔고, 가드너는 거들 뿐이라고 몸을 낮추며.

"아름다운 정원은 지구에서 인간이 만들 수 있는 최고의 걸작이자 안식 처"라며 정원을 향해 찬사를 보내는 저자는 가드너가 아니더라도 이 안 식을 누릴 수 있다고 조언한다. 책은 체코 작가 카렐 차페크의 말을 빌려 "사람은 반드시 한 조각의 땅이라도 가꾸며 살아야 한다"고 강조한다. 한 조각의 땅을 가꿀 수 있는 사람은 쉽게 무너져 내리지 않을 것이다. 자신 의 삶에 손바닥만 한 기쁨이라도 내어줄 공간을 확보했으니까. 기후변화 로 몸살을 앓는 지구에 손톱만 한 도움이라도 줄 수 있으니까.

결핍이 있는 사람들이 쉽게 중독에 빠진다는데, 자, '식물 중독자'는 어떤가. 어차피 현대인들은 어딘가 조금씩 부족한 사람들 아닌가. 오늘 당장거리에 핀 봄꽃을 찍어보자. 아니면 여름을 마중 나온 라일락과 반짝이는 나뭇잎도 괜찮다.

글 박동미_《문화일보》 기자 | **사진제공** 현암사, 날

야, 너무 〈시맨틱에러〉 보고 있어?

웹드라마 <시맨틱 에러>



'BL'이 뭐냐고 묻는 오빠에게 '뷰티풀 라이프'라고 알려줬더니, 상태 메시지에 '나는 BL을 꿈꾼다'라고 써놨다는… 오래된 트위터 농담이 있다. BL은 '보이즈 러브Boy's Love'의 줄임말이다. 최근 온라인 서점 베스트셀러를 장악

하는 이 장르의 서적 중 눈에 띄는 것이 《시맨 틱 에러》 포토북이다. 왓챠 오리지널 드라마 의 대흥행에 힘입어 이어지는 BL 장르 영상 화 소식을 보면 이 장르가 대중화되고 있음을 받아들일 때가 된 것 같다.

저수리 작가의 원작소설 《시맨틱 에러》는 BL 고인물(오랫동안 해당 장르를 봐온 독자 스 스로를 일컫는 말)들이 입문자에게 추천하는 작품이다. 풋풋한 캠퍼스물이면서, 주인공 성

격이 개성 있으며, 초반 전개가 코믹해 입문 자가 이입하기 쉽다. 특히 혐오 관계였던 공 수(BL에서 남x남 주인공의 관계 포지션에 따 라 일컫는 말)가 싸우다가 사랑에 빠지는 과 정이 로맨틱 코미디의 전형을 충실히 따르면 서도 주고받는 대사가 코믹하고 사건 전개 가 빨라 재미있는 웹소설의 요소를 고루 갖추 고 있다. BL 웹드라마가 이전에도 만들어진 바 있지만 《시맨틱 에러》는 2018년 2월 출 간 후 꾸준히 베스트셀러 자리에 있는 히트 작인지라 영상화 소식이 알려지자 원작 팬들 의 우려 또한 컸다. 장르의 특성상 주인공 외 모가 판타지에 가깝기 때문에 만족스러운 캐 스팅이 가능할 것인지에 대한 우려였다. 제작 사 역시 저수리 작가를 설득하면서 캐스팅을 강조했다고 하는데, 이 드라마의 성공 요인이 바로 이 절묘한 배우 캐스팅에 있다.

<시맨틱 에러>는 이상한 드라마다. 8부작에 불과한 이 드라마의 팬덤은 열광을 넘어서서 진짜 여기에 미쳐 있다. 수면으로 드러나지는 않지만 2030 여성들 사이에선 눈이 마주치면 "야, 너두? (보고 있어?)"가 통할 정도다. 2022년 3월 10일 전 회차가 공개된 후 한달넘게 왓챠 조회수 1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드라마 인기에 힘입어 발매된 《시맨틱 에러》 포토 에세이는 빠르게 매진됐고, 리디북스에 따르면 원작소설과 웹툰의 판매율 역시 10배 이상 증가했다고 한다.

이 드라마의 재미있는 지점은 19금 원작을 12세 시청가로 바꾸면서 주인공들의 성적 긴장감을 캠퍼스물의 풋풋한 설렘으로 대체 하고, 연출과 조명이 두 배우의 잘생김에 집 중했다는 점이다. 로봇처럼 딱딱한 공대생 추 상우(박재환)와 디자인을 전공하는 자유로 운 영혼 장재영(박서함)은 N극과 S극처럼 정 반대의 성격을 가졌다. 조별 과제에 무임승차 한 장재영의 이름을 발표에서 다 빼버린 추상 우 덕분에 졸업이 유예된 장재영이 추상우를 괴롭히며 둘은 얽히게 된다. 이후 엎치락뒤치 락 싸우다가 정반대의 두 사람이 연애하는 것 이 드라마의 주 내용이다. 여기까지 읽은 당 신은 "별것도 없네, 내용 뻔하다"고 생각할지 도 모르겠다. 하지만 그 뻔한 내용이 특별해 지는 것이 바로 요즘 BL 장르의 특성이다. 이 전 퀴어 영화들과는 달리 이 세계에서는 '남 자와 남자의 사랑'이기 때문에 갈등하지 않는 다. 주변 인물들조차 레즈비언으로 설정되어 있고, 주인공들의 성격이 너무 달라 생기는 오해와 갈등이 점층되지, 둘 다 남자이기 때 문에 겪는 사회의 시선이나 가족의 반대 등은 드라마에 등장하지 않는다.

일본의 성공 예시인 <30살까지 동정이면 마법사가 될 수 있대>(이하 <체리마호>)도 비슷한 과정을 밟았다. 2020년 동명의 원작 만화를 영상화한 <체리마호>에도 남자와 남자의 사랑이기 때문에 나오는 갈등은 거의 없다. 동정인 채로 서른 살을 맞이한 후 상대의속마음을 읽을 수 있게 된 아다치(수)는 잘생긴 동료 쿠로사와(공)가 자신을 짝사랑한다는 것을 알게 된다. 상대의 마음이 들리는 것을 쿠로사와에게 비밀로 하는 것이 주요 갈등이지, 아다치 역시 "남자인 쿠로사와와 내가

어떻게 연인이 될 수 있어?"라며 고민하지 않는다. 동성 간의 사랑이 가진 갈등과 한계보다 <체리마호>는 주인공의 다정한 성격과 잘생긴 외모에 집중했고, 이러한 연출이 '상냥하다'며 여성 시청자들의 호평을 받았다. 이는 BL이 주인공들의 퀴어성을 무시해야 성공한다는 것이 아니라 여타 영상물들과 같이 선택과 집중을 했다는 설명이다.

<체리마호> <시맨틱 에러>에 이어 왓챠는 <겨울 지나 벚꽃>을 서비스 중이고, 이 역시 인기 순위에 올라 있다. BL 영상화의 대중적 성공과 부, 상품의 구매력이 입증되자 현재 BL 인기 소설과 만화들의 영상화를 위한 작 업이 진행되고 있다. 이 장르는 양지화됐는 가. <시맨틱 에러>의 인기 대사가 곳곳에 자 막으로 활용되는 것을 보면 의외로 이 팬덤은 업계 곳곳에 침투돼 있다. 영상화는 이어지고 있지만 아직 시청자들은 좁고 깊은 마니아에 가깝다. 하지만 손으로 셀 수도 없게 많아진 OTT와 방송 채널과 유튜브 등의 치열한 경 쟁 구조에서 BL이 '신선하고 새로운' 시장처 럼 보이는 것은 사실이다. 다만 제작자는 이 장르의 주요 소비층인 여성들이 왜 BL을 보 는지를 간과해선 안 된다. 이것은 현실보다는 판타지에 가까운 장르이고, 그렇기 때문에 소 비자들은 더욱 까다로우며, 매의 눈으로 파악 한다. 제작자와 출연자가 이 장르를 만만하게 보는지, 아니면 소비자 니즈를 파악하고 이 장르에 진심을 다하는지에 대하여.

글 김송희_《빅이슈코리아》 편집장, 《희망을 버려 그리고 힘내》 저자, 칼럼니스트 | **사진 제공** 왓챠

꾸역꾸역, 생존의 시간 그 속

박희권 감독의 <축복의 집>





감독 박희권 **출연** 안소요(해수), 이강지(해준), 김재록(형사), 이정은(보험)



절대 볕이 들 것 같지 않은 쥐구멍 속의 구멍 같은 삶이 있다. 낮은 곳이라 생각하지만 더 낮은 곳의 집이 존재한다. 그래서 집이 안락 하고 안전한 보금자리라고 느낄 수 없는 사람 도 있다. 1초, 1분, 1시간이 쌓여 삶이 되는 것이 아니라 1초, 1초, 1초가 그저 견디고 살 아내야 하는 생존이 되는 순간, 달아나지 못 하고 결국 돌아가야 하는 집과 그 속의 삶은 그 자체로 공포다.

삶이라는 착취

아침에는 공장에서, 저녁에는 식당에서 쉬지 않고 일하는 해수(안소요)는 어느 날, 먼 동네 의사에게 시체검안서를 발급받는다. 그리고 병원과 집을 오가며 온갖 서류를 처리해 나간 다. 집을 나간 동생을 찾은 후 겨우 어머니의 장례를 치르지만 이상하게 해수의 표정은 불 안하기만 하다.

박희권 감독의 장편 데뷔작 <축복의 집>은 벼 랑 끝에서 겨우 목숨줄을 부지하고 사는 해수 의 삶 속으로 쑥 들어간다. 앞뒤 이야기를 다 자르고, 해수라는 소녀가 겪는 3일을 아무런 감정이나 소동 없이 다큐멘터리처럼 관찰한 다. 그래서 해수가 대체 왜 그렇게 분주하게 돌아다니는지 관객들은 파편적인 이야기를 통해 유추해야 한다.

재개발 지대에 있는 낡고 어두운 해수의 집은 관객들에게 비밀의 공간이다. 집과 엄마와 죽 음과 해수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알 수 가 없기 때문이다. 이미 동생은 집에서 달아났고. 해수는 계속 무언가를 숨긴다.

혼자 분주하게 돌아다녀 보지만 해수가 할 수 있는 일은 고작 하루에 몇 개가 되지 않는다. 그리고 자꾸 그녀에게 선택을 하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모두 불친절하다. 시간과 사람들이, 더위와 무관심이 끊임없이 그녀를 녹여버리는 것 같다. 그래서 관객들의 정서도 눅눅하게 젖어버린다.

박희권 감독은 해수가 자신을 씻어내리는 장면을 꽤 오래 공을 들여 보여준다. 공장에서기름때에 전옷을 빨아내고, 집에서는 더러워진 머리카락을 감는다. 흙을 파내느라 손톱 깊숙이 파고든 오염물은 씻고 또 씻어도 끝내깨끗해지지 않는다. 사람과 사람, 사람과 공간,그리고 그사이를 떠도는 여러 사람의 인생이켜져이, 오래 묵은 때가 된 것같다.

죽음이라는 구원

<축복의 집>은 숨 막히는 현실을 관찰하지만 무작정 관조하는 이야기가 아니다. 영화는 오 히려 숨이 막혀, 턱 멈춰 선 순간에서 시작하 고 숨이 가쁜 채로 살아가는 해수의 순간에서 끝이 난다.

가난과 그 시간의 착취를 이야기하지만, 절대 그 삶을 동정하거나 비극적 정서로 감정을 학 대하지 않는다. 약해서 끝내 악해지고 마는 사람들을 정서적으로 단죄하지 않는다. 그럼 에도 결국 나아지리란 거짓 위안을 주지도 않 는다. 결국 엄마의 죽음은 세상에 어떤 자국도 남기지 않는다. 그래서 아이러니하게도 해수에게 엄마의 죽음은 상실이 아니라 구원이다. 그럼 에도 <축복의 집>은 아이들의 미래를 개발이되지 않은 재개발 지대처럼 버려둔다.

고아는 아니지만 고아나 다름없는 삶을 살아 온 아이들이 진짜 고아가 되었을 때, 아이들은 살아남을 수 있을까? 그리고 아직 생존해 있 는 아비라는 존재는 그들에게 도움이 되긴 할 까? 질문에는 어떤 답도 없이, 설명이 부족한 서사는 원래 불친절한 우리의 삶처럼, 작정 없 이 직진한다.

<축복의 집>의 카메라에는 감정이 결여되어 있다. 관찰 다큐를 찍는 것처럼 카메라는 해수 를 앞서거나 해수를 쫓거나 해수의 곁을 떠나 지 않는다. 카메라의 가장 충실한 역할은 해수 를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프레임 속 에 가두는 일이다.

영화의 끝. 카메라는 뚝 끊어지듯 화면을 지운다. 해수의 모습을 더는 기록하지 않으며 프레임에서 그녀를 몰아낸다. 오직 해수의 소리만이 담긴다. 해수의 가쁜 숨과 바닥을 질질 끄는 발걸음 소리를 따라가다 보면, 해수의 삶이아직 끝나지 않고 우리 옆에서 계속 이어질 것만 같다. 매일 월컹대며 가다가 뚝뚝 멈추는우리 삶처럼 꾸역꾸역, 근근이 말이다.

글 최재훈.영화감독이 만들어낸 영상 언어를 지면 위에 또 박또박 풀어내는 일이 가장 행복한 영화평론가. 현재 서울 문화재단에서 근무하며 각종 매체에 영화평론과 칼럼을 연재하고 있다. 저서로 《나는 아팠고, 어른들은 나빴다》 등이 있다.

'수궁가'의 영원한 라이벌, 임방울과 김연수

인간이 느끼는 희로애락의 정서를 우리나라 고유의 악기와 장단과 소리로 구성지고 맛깔나게 풀어내는 우리 음악, 국악. 음악의 세계는 가히무궁무진하나 다양한 음악을 들으면 들을수록 확인하게 되는 자명한사실이 있다면, 바로 국악이 가지고 있는 '대체 불가함'이다. 지난 40여년 동안 다양한 집필 활동과 창작 활동으로 국악을 대중에게 재미있고친근하게 소개해 온 대한민국 1호 국악 평론가 윤중강이 [문화+서울]독자들을 위해 또 한 번 펜을 든다. 말하자면 국악 비하인드 스토리. 당신이 몰랐던. 알려지지 않은 국악 이야기를 시작한다.





소리꾼 임방울(위), 김연수(아래)의 모습

"범 내려온다. 범이 내려온다." 판소리 '수궁가'의 한 대목이다. 수궁에 사는 자라는 토끼의 간을 구하기 위해 바다를 떠난다. 육지에 도착한 자라는 토끼를 부른다는 것이 그만 호랑이를 부르게 됐다. '토생원'이라고 해야 할 것을, '호생원'으로 잘못 부른 거다. 그래서 한바탕 소동이 벌어진다.

1938년 3월 13일부터 닷새 동안 동양극장에서는 '토끼타령'이 펼쳐졌다. 바로 이 '수궁가'를 창극으로 공연했다. 당시 가장 인기 있던 젊은 소리꾼 2명이 주인공을 맡았다. 토끼는 임방울^{1904~1961}, 자라는 김연수^{1907~1974}였다. 숙명의 라이벌이었다. 두 사람의 관계는 모차르트와 살리에리와 같았다.

대중적 인기는 임방울이 앞섰다. '쑥대머리'라는 불후의 명곡이 있었다. 판소리 '춘향기' 중에서 옥에 갇힌 춘향이를 부르는 노래로, 1930년대 '조선의 명곡'으로 사랑받았다. 학식이 풍부한 김연수는 판소리의 '이면'에 맞는 노래를 불렀다. 판소리에 대한 이해가 누구보다도 깊었다. 가사가 분명했고, 늘 상황에 맞는 소리를 했다. 임방울이 소리를 중심으로 한 '공연 지향'이라면, 김연수는 대본에 충실한 '연극지향'이었다. 요즘에 비교한다면, 임방울이 콘서트 가수라면, 김연수는 뮤지컬 배우와 같았다고 해야 할까?

공연 제목도 '토끼타령'이니 임방울에게 더 무게중심이 있는 것 같지 만 꼭 그런 건 아니었다. 김연수가 연기를 잘하니 그에 대한 기대가 더 컸다. 자라처(박록주), 자라첩(성미향), 자라모(이소향)까지 등장해서 자라에 집중한 공연이었다. 자라의 캐릭터와 김연수의 매력을 살리 기 위해서 당시 이 공연을 만든 '조선성악연구회'는 최선을 다했다.

두 사람은 모두 유성준^{1873~1949} 명창 문하에서 판소리를 익혔다. '유성준' 하면 '수궁가'였고, 특히 '자라가 토끼를 만나는 대목'으로 유명했다. 두 사람은 이 대목을 잘 부르려 했는데 임방울은 토끼의 입장에서, 김연수는 자라의 입장에서 노래를 부르는 것처럼 들렸다.

임방울은 온리 원이에 아마, 김연수는 넘버 원No.1을 지향한 사람이다. 그게 곧 '수궁가'의 토끼였고, 자라였다. 토끼는 뭍에서의 서열이 싫 었다. 그래서 수궁에 가면 비교 대상이 없고, 자신이 확실히 '온리 원'





'토끼타령'을 공연한 동양극장. 조선성악연구회 공연은 대부분 동양극장에서 열렸다. 중구의 현 농업박물관 자리다.

이 될 수 있음을 확신했다. 자라는 수궁에서 넘버 원이 되고자 했다. 용왕을 살려낸 특효약인 토끼의 간을 구해 수궁에서 최고의 권력을 누리고자 하는 욕망이 있었다.

그게 토끼와 자라였고, 바로 임방울과 김연수이다. 1940년대 들어서 조선성악연구회가 점차 유명무실해지자 임방울은 주로 '혼자', 김연수는 늘 '같이' 활동했다. 임방울은 단체에서 활동하는 것을 지양하면서 자신의 명성에 기대 무대에서 인기를 누렸다. 반면 김연수는 창극단을 만들어 활동했다. 임방울에게는 뚜렷한 제자가 없었지만 김연수에게는 늘 제자가 따랐다. 김연수는 그러했기에 성공했다.

1948년에 '여성국극'이라는 장르가 시작됐고, 1949년에 <햇님과 달님>이라는 여성국극의 명작이 등장해 당시 최고의 흥행물로 자리 잡았다. 여성국극은 말 그대로 여성이 남성의 무대에 오르는 작품이 었다. 여성들은 무대 위에서, 남성들은 무대 옆에서 악기를 연주하는 상황이었다. '여성국극 시대'에 유일하게 남녀 혼성의 창극으로 살아 남아 크게 성공한 건 김연수가 이끄는 '우리국악단'이었다. 김연수는 어떠한 리더였을까? 그는 늘 자신만이 주인공을 독점하지 않았다. 홍 갑수와 더블로 주인공을 맡았고, 오정숙과 같은 신인들에게 기회를 제공했다. 그는 이런 활동 덕분으로 '국립창극단'(당시 '국립국극단') 의 초대 단장을 맡게 됐다. 모차르트와 살리에리의 관계에서는 살리에리가 역사의 뒤편에 존재하지만 임방울과 김연수의 관계에서는 '반전'이 있었다.

임방울은 어땠을까? 그의 인기는 계속됐지만 시대의 변화 속에서 예전과 같지는 않았다. 김연수가 '창극'으로 인기를 구가할 때, 임방울은 '온리 원'의 형태인 판소리로 고군분투했다. 역시 '국창團^唱 임방울'이라는 말은 명불허전^{各不虛傳}이었다. 그가 세상을 떠났을 때 장례 행렬이 증명한다. 1961년 3월 13일 치러진 임방울의 장례는 유명하다. 서울 종로거리에 예전 상여가 등장했다. 많은 국악인이 임방울의 죽음을 애도했다. 김소희·박초월·박귀희 등 당대 최고의 여성 명창이소복을 입고 나와 임방울이 떠나는 길을 상엿소리를 부르면서 예를 갖췄다.

1974년 3월 9일, 김연수 명창이 세상을 떠났다. 그날은 바로 수제자 오정숙의 국립극장 완창판소리 발표회가 있는 날이었다. '수궁가'를 완창했다. 스승이 타계하는 날, 제자는 스승이 가장 중시하던 소리를 한 것이었다.

1974년 3월 22일, 국립창극단의 '수궁가'가 무대에 올랐다. 고^故 김 연수 명창을 기리는 작품으로 단원들은 열과 성을 다했고, 관객과 평단 모두 크게 호평했다. 임방울의 역할은 남해성에게, 김연수의 역할은 조상현에게 이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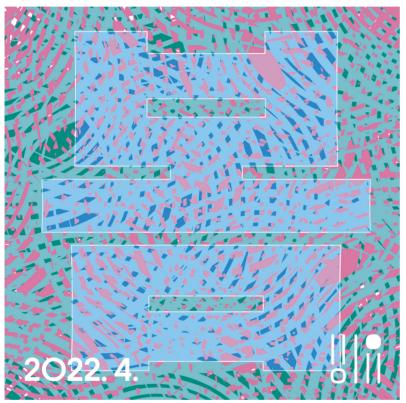
김연수가 세상을 떠난 지 한 달이 되지 않아서 또한 믿기 어려운 일이 벌어졌다. 명고名鼓 이정업이 뒤따라 저세상으로 간 것이다. 그는 임 방울과 김연수와 짝을 이룬 고수로 특히 유명했다. 당시 국악판에서 는 이런 말이 떠돌았다. "김연수가 천국에서 심심해서 이정업을 불렀다." "임방울도 떠나고, 김연수도 떠나고, 이제 이정업이 북을 치고 싶은 명창을 따라갔다."

저세상이라는 곳이 있다면 세 사람은 거기서 어땠을까? 두 사람은 역시 '선의의 맞수'가 돼 '수궁가'로 배틀을 하지 않았을까? 이정업의 북장단에 맞추면서.

글-사진 윤중강_국악 평론가

이야기+서울 비유

끝없는 디아스포라



웹진 [비유] 52호 포스터

대선을 며칠 앞둔 어느 늦은 밤, 열어놓은 방문 사이로 시어머니의 통화 음성이 간간이 들려왔다. 대화 상대는 캐나다에 거주 중인 어머님의 여동생이었다. 남편의 이모님은 대단히 강경한 목소리로 한 후보를 지지하고 있었다. 한국 대통령이 누구냐에 따라 이민자의 삶이 크게 달라진다는 거였다. 국경 너머의 삶에 관심을 가져본 일이 거의 없는 나도 최근엔 그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게 된다. 책상 위엔 캐시 박 홍의 《마이너 필링스》를 올려두었고, 드라마 <파친코>를 보기 위해 매주 금요일 밤이 오기만을 기다린다.

미스터 호철 리. 장인어른은 1942년에 태어났다. 도시 이름을 잊어버렸는데(G로 시작한다는 것만 기억난다), 지금은 북한에



있는 도시에서 태어났다고 했다. 내 예상과 다르게 장인어른은 자신의 유년 시절을 선명하게 기억하지는 못하는 것 같았다. 하지만 적어도 그에게 G라는 도시는 언제나 돌아가고 싶은, 그러나 영원히 돌아갈 수 없는 어떤 공간을 의미하는 것만은 분명했다.

문지혁, 〈에어 메이드 바이오그래피〉 중

소설 속 '나'는 아내의 아버지 호철을 만나러 한국행 비행기에 오른다. 화자는 공항 로비에서부터 자기 장인의 삶을 돌아보면서, 인상적인 기억들을 아이패드에 글로 적어 정리하기 시작한다. 호철은 이민자 1세대의 전형으로 식당 허드렛일로 미국에서 삶을 시작했다. 북에서 태어나 생의 대부분을 이민자로 살아온 그는 평생에 걸쳐 일궈온 삶을 정리한 뒤 한국으로 돌아간다. 하지만 북녘 고향 땅을 끝내 밟지 못한다는 점에서 귀국 후에도 그는 영원한 이민자일 수밖에 없다.

"다 끝났어. 한국에 돌아가야 해."

설거지하려고 그릇을 싱크에 넣고 있는데 등 뒤에서 호철이 말했다. 조이는 화장실에 갔는지 자리에 없었다.

"노 웨이.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그동안 미국에서 장인어른이 얼마나 많은 일을 해냈어요? 그랜드 마스터, 태권도 도장, 슈퍼마켓, 가족, 사업, 네트워크, 기부, 봉사, 그리고 조이까지······. 장모님 돌아가신 건 마음 아프지만 그래도 장인어른에겐 장인어른만의 인생이 있잖아요. 이렇게 포기할 거예요?"

문지혁, 〈에어 메이드 바이오그래피〉 중

아내가 죽고 호철은 한국에 돌아갈 결심을 굳힌다. 돌아가고 싶다고 말하지 않고 돌아가야 한다고 말하는 장면이 인상적이다. 분단 상황 속에서 호철에게 '돌아가고 싶은' 고향이란 현실에 존재하지 않는 것이나 다름없다. 아내의 죽음으로 미국에서의 삶은 의미를 잃었고 그는 한국으로 돌아갔다. 하지만 호철은 남한에서도, 그것이 미국과는 다른 방식일지언정, 여전히 디아스포라로서 살아가야 했을 것이다.

단편소설의 형식 안에서 호철이 겪은 차별의 역사와 경험이 구체적 이야기로 드러나기는 어렵다. 〈에어 메이드 바이오그래피〉는 장인에 게 애정을 가진 미국인 사위의 시선을 통해 호철이라는 한 사람의 인생을 몇 개의 에피소드로 짐작하게 한다. '나'는 소설의 서술자로서, 너무 가까운 사람의 인생에서 느끼는 애처로운 시선을 얼마간 거둔 채, 호철의 일생을 담담하게 바라본다. 한 이민자의 지난한 삶과 그에 맞서는 끈질긴 열정, 그럼에도 평생 지녀온 선량함과 유쾌함, 그리고 한국인으로서의 섬세한 개성이 모두, 다소 엉뚱한 성격의 '나'가 아이패드에 적은 글을 거치며 간결해진다. 괜히 비장해지지 않는 짧은 에피소드 몇 개로 이민자의 딜레마를 충분히 전달하는 것이 이 소설의 매력이다.

한국에 도착한 호철의 딸 조이와 사위 '나'는 공항에서 PCR 검사를 진행한 후 2주간 호텔에 격리된다. '나'는 그 시간을 와이파이에 의지해 알차고 즐겁게 보낸다. 그러나 호철의 딸은 그렇지 않다. 미국 국적이라는 이유로 호철과 조이는 한국 내에서 '한국 내 가족'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상황이다. 조이는 초초해하는 동시에 분노한다. 소설이 마지막까지 강조하는바, 디아스포라의 부유하는 정체성은 매우 실제적이며 현실적인 방식으로 이민자의 감정과 일상을 침범한다.

글 김잔디_[비유] 편집자 | 사진 웹진 [비유]

연극 人n

올해에도, 극장에서, 세월호 기획, 하기

연극실험실 혜화동1번지 세월호 기획공연

2022년 연극실험실 혜화동1번지 세월호 기획공연(이하 세월호 기획)이 8회차를 맞이해 4월 7일 개막했다. 혹자는 "올해에'도' 세월호 기획을 '왜' 진행하는지" 물을 수 있다. 세월호 기획은 꽤 명료한 답변을 가지고 있다. 지난 8년간, 그리고 지금이 순간에도 세월호 참사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 사실을 여전히 우리가 목도하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세월호 기획이 그 본질적 기획 취지에만 기대왔던 것은 아니다. 이 글에서는 내가 기획팀으로 참여한 최근 3년(2020~2022)에 한 정해 세월호 기획의 변곡점과 2022년 세월호 기획 <2022∞세월호>를 소개하고자 한다.1

세월호 기획은 그 연속성이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혜화동1번지 연출 동인들이 다년간 세월호 참사를 주제로 탐색해 왔기 때문이다. 지난 3년간 개별 작품들을 살펴보면 큰 키워드로 묶을 수 있는 유사성을 발견할 수도 있다.

지난 3년간 세월호 기획의 몇몇 작업은 세월호 참사를 다루기 위해, 다른 사건이나 상실의 경험을 '경유'하는 경향을 보였다. 일례로 쿵짝프로젝트의 <디디의 우산>(2019)은 1996년 한총련 연세대 사태를, 래빗홀씨어터의 <보팔, Bhopal(1984~)>(2019)은 1984년 인도 보팔 가스누출 참사를 등장시킨다. 이번에 선보이는 신작 희곡 역시 마찬가지 경향을 보인다. 허선혜 작가의 <괴담>(2022)은 원전 사고의 느린 폭력을, 김윤식 작가의 <고인돌 위에 서서>(2022)는 수 몰된 마을과 사고로 인한 상실 이후의 시간을 그린다. 우회하거나 경유하는 방식을 통해 세월호 참사를 환기하고 있는 것이다. 달리 보면, 이러한 작업들의 경향은 세월호 참사가 촉발한 감각일지도 모른다. 세월호 참사라는 맥락 안에서 또 다른 참 사나 상실을 성찰할 기회를 얻을 수 있다.

세월호 기획을 매년 찾았던 관객이라면, 작업의 연속성 속에도 미묘한 변화들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조원재 작가는 앞서 언급한 <보팔, Bhopal(1984~)>의 스핀오프 작업으로 <7일>(2022)을 신작으로 선보인다. 2019년 버전은 가스누출 참사 당시 상황과 피해를 주로 전달했다. 반면, <7일>은 참사 직후 남아 있던 독극물을 소진하기 위해 일주일의 시간을 보내고, 긴 시간 그 일을 외면해 온 인물을 그리는 데 치중하고 있다. Oset프로젝트의 <저 너머로의 발걸음>(2022) 역시 <기록의 기술>(2020), <거리두기>(2021)를 잇는 연속 작업이다. Oset프로젝트는 세월호 유가족 당사자의 목소리들을 '더 잘듣기 위한' 방식으로서 '이동'을 선택해 왔다. 이번 작업은 안산 화랑유원지를 향하며, '지금 여기'를 바꾸고 '저 너머'를 향하는 발걸음을 관객들과 함께한다.

한편 혜화동1번지 7기 동인의 경우, 매해 세월호 작업을 선보이면서 '세월호로 연극하기'에 대한 자기 성찰을 작업에 반영한

1 2015년 혜화동1번지 6기 동인으로부터 출발한 세월호 기획공연은 세월호가 우리에게 무엇이며 세월호를 통해 우리는 무엇을 볼 것인지(2015), 세월호 이후의 연극은 무 엇이며 극장은 어떠해야 하는지 질문했으며(2016), 세월호로부터 파생, 상상될 수 있는 연극적 이야기를 선보이거나(2017), 고전 희곡, 문학, 철학 텍스트 등을 원작으로 세 월호 이후 재구성된 우리의 세계를 사유했다(2018). 2019년 활동을 시작한 7기 동인은 사회적 참사의 과거, 현재, 미래를 짚으며 여전히 우리가 '마땅히 있어야 할 자리'가 무엇인지에 질문하는 <2019 세월호: 제자리〉를 통해 관객을 만났다.



4·16가족극단 노란 리본 <기억여행>

듯 보인다. 프로젝트그룹 쌍시옷의 <스물여섯>(2022)은 20분가량의 1인극 <스물다섯>(2021)을 두 사람의 관계 맺기로 발전시키는데, 이 작업은 생존자 학생을 만나며 그 고통에 닿을 수 없음을 자각하는 '나의 고백'으로 변화됐다. 쿵짝프로젝트의 <툭>(2022)은 추모 공간 안에서 진정한 애도가 무엇인지 묻는다. 나는 극 중 추모 공간인 '서천꽃밭'을 조성하는 과정이우리가 세월호 참사를 연극으로 만드는 일과 유사하게 느껴졌다. 결은 다르지만, 엘리펀트룸의 <세월호 학교>(2022)가 관객을 어린이로 상정한 맥락 역시 작업자의 성찰로 읽을 수 있다. 그간 세월호 기획은 '8세 이상'이라는 관람 연령을 습관처럼기재해 왔지만, 정작 극장은 어린이 관객을 맞을 준비가 돼 있지 않았다. <세월호 학교>는 세월호 참사라는 주제와 극장의 물리적 한계를 극복하고 어린이 관객과의 소통을 준비했다.

마지막으로 2019년 이후 매년 함께해 온 4·16가족극단 노란 리본의 작업은 세월호 기획의 중심이자 버팀목이다. 이번에 선보인 <기억여행>은 세월호 참사 이후 '세월호 엄마'로 활동해 온 유가족들이 직접 지난 여정의 의미를 발견하고 그것을 서사화한다. 이들은 마주하는 세상의 혐오에 손을 내밀고 끝내 그것을 껴안는다. 그간 세월호 참사를 다룬 수많은 연극이 힘들었던 지점은 고통의 재현 불가능성이었다. 이 모든 시간을 견뎌온 '세월호 엄마'들은 정공법으로 그 가능성에 도달하는 것으로보인다.

글 김진이_독립기획자. 사람이 만나는 장소로서 극장을 배우고 있다. soggeto@naver.com | **사진** 이미지 작업장_박태양 ※ 본 원고는 지면 관계상 편집되었습니다. 원문은 웹진 [연극in]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침묵,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선언

전쟁과 〈백조의 호수〉

최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을 러시아 정부의 입장과 다르게 보도해 오던 러시아의 민영 방송사 도쉬티^{Дождь, Rain}에서 직원들이 사퇴를 선언한 후 <백조의 호수^{Лебединое Озеро, Swan Lake}>를 방영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정치적 맥락에서 <백조의 호수>의 의미를 살피고, 현 두 국가의 사태를 문화 지형과 역사의 관점으로 접근해 살펴보고자 한다.



3월 4일, 러시아의 민영 방송사 도쉬티는 직원들이 자진 사퇴를 선언하는 모습을 보여준 후 발레〈백조의 호수〉를 방영했다. 이들의 사퇴는 본 방송사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상황을 '전쟁' '침공'으로 보도하는 과정에서 러시아 정부와 입장이 달라 탄압받았기 때문이다. 〈백조의 호수〉방영은 현 러시아 정부를 향해 어떤 메시지를 전달한 것일까? 현 사태를 단순히 블라디미르 푸틴이 벌인 전쟁으로만 볼 수 있는 걸까? 미국과 서유럽 국가 중심의 유럽연합^{EU}, 북대서양조약기구, 소비에트연방국가에 속해 있던 국가 간에 복잡하게 얽혀 있는 이해와 역사적 관계에도 불구하고 서구권의 언론에서는 단순하게 접근하려는 경향이 있다.

전범 사태까지 흘러온 기저에 일방적 사고 흐름은 없는지 비평적으로 바라봐야 할 필요가 있다. 전 세계적으로 러시아 예술가들이 자진 사퇴를 하거나 사임되고 있으며 러시아 문화예술이 순식간에 '당연히' 지워지는 현시점에서 그 맥락을 향한 질문을 던져봐야 한다. 복잡하고 다난한 여러 입장에 대한 이야기를 최근 러시아의 언론탄압으로 직원들이 단체 사퇴한 후 방영한 〈백조의 호수〉사건으로 시작해 보겠다.

〈백조의 호수〉로 기억되는 과거

러시아에서 <백조의 호수>를 방영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1982년 11월 10일에 소비에트연방 공산당 서기장 브레즈네프의 사망 당일, 1984년 2월 9일 소비에트연방 공산당 서기장 안드로포프의 사망 당일에도 <백조의 호수>를 송출했다. 소비에트연방의 붕괴에 결정적 사건인 '8월의 쿠데타'가 일어나던 당시 3일간 러시아 방송에서는 〈백조의 호수〉가 송출됐다.



당시 러시아인들은 <백조의 호수>를 보고 국가에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났음을 예측했다고 한다. 본 작품의 예술성과 달리 방송을 통한 송출로 정치적 퍼포먼스가 이뤄지는 맥락에서 러시아인들에게 〈백조의 호수〉는 일종의 불길한 징후로 인식돼 온 것이다. 외부의 시선으로는 "러시아답다" 혹은 "이해할 수 없지만 아름답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러시아인들에게 언론이 정치적 사건을 언어화할 수 없을 때 〈백조의 호수〉를 과거부터 동일한 방식으로 방영해 왔다는 데에서 그 체감은 매우 다를 것이다. 혹은 이러한 인과관계가 없는 사건과 예술 작품이 만남으로써 기이한 아름다움이 발생하기도 한다.

러시아의 자랑, 〈백조의 호수〉

러시아의 발레는 프랑스로부터 수입한 춤이다. 표트르 대제^{1672~1725} 시대에 러시아의 근대화를 서구를 모델로 하며, 북방전쟁의 승리로 영토를 서구로 넓히고, '서구를 향한 창'으로 도시 상트페테르부르크를 건설하는 등 발레의 유입과 더불어 국가 차원에서 러시아의 서구화가 활발히 진행됐다. 발레는 러시아 궁정의 후원을 받으며 발전했다. 그리고 프랑스 발레교사 마리우스 프티파^{1818~1910}에 의해 러시아의 고전발레가 탄생한다. 그중 〈백조의 호수〉는 러시아의 백조 전설을 기반으로 블라디미르 베기체프와 겔쳐가 대본을 쓰고, 차이콥스키^{1840~1893}가 작곡하며, 마리우스 프티파가 1, 3막을, 레브 이바노프가 2, 4막을 안무해 완성됐다.

이 작품은 러시아를 비롯해 전 세계의 발레 작품 레퍼토리로 자리 잡았으며, 소비에트연합국 시절 외교 활동의 일환으로 해외에서 내방한 손님에게 〈백 조의 호수〉를 관람하도록 하는 등 러시아가 추구하는 극도의 아름다움과 예술성을 보여줬다.

러시아는 수입한 춤을 단순 답습하거나 전승하는 것이 아닌 춤을 '러시아화'해 러시아만의 것으로 승화시키는 힘을 가지고 있다. 러시아는 발레를 수입해 온 프랑스에 러시아의 고전발레와 낭만발레를 거쳐 발레 뤼스Ballets Russes를 역수출하는 우월함을 보여준다. 러시아 발레의 근간에는 러시아와 서유럽의 역사, 러시아의 근대화 정책이 있었다고 해도 무리가 아니다. 문화 또한 러시아 문화로 승화시켜 넓혀가는 양상을 볼 수 있다. 발레는 이탈리아에서 시작해 프랑스로, 러시아를 거쳐 다시 프랑스를 비롯한 서구권으로 확장된다.

도쉬티 방송국의 (백조의 호수) 방영은 침묵인가, 발언인가?

〈백조의 호수〉는 러시아가 자랑하는 발레 작품이자 프랑스 발레를 러시아만의 스타일로 승화시켜 전 세계의 레퍼토리로 인정받은 작품이다. 그러한 작품이 러시아인들에게 불길함, 불안함을 야기하는 상징으로 기능하게 된 것은 아름다움으로 가려진 공산주의의 비판이었을까.

왜 하필 〈백조의 호수〉인지에 대한 추측은 여러 가지다. 차이콥스키가 작곡을 마친 당시가 부활절 이후 추모 주간이었다는 설, 이 작품에 죽음의 모티프가 있기 때문이라는 설 등이 있다. 이 작품의 결말은 여러 차례 수정을 거쳐 버전이 제각각 다르기도 하다. 구소련 시기에는 지그프리드 왕자의 승리로 마법이 풀리는 해피엔드 버전이 무대에 많이 올랐다. 공산주의 국가에서 해피엔드는 승리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이번 사태에 대해서는 선이 악을 이기고 승리할 것으로, 도쉬티가 우크라이나 승리의 편에 선다는 해석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여러 가설을 뒤로하고 〈백조의 호수〉가 극장 공연이 아닌 TV 매체로 방영될 때 붕괴와 죽음, 해체의 상징을 지닌 맥락에서 이번 사건은 구소련이 해체되던 당시 침묵하기 위한 방편으로 방영했던 것과는 다른 의미를 지닌다고 본다. 도쉬티 방송국이 러시아 정부 입장과 다른 시각을 보도했다는 점에서 〈백조의 호수〉는 현재 푸틴 정권의 붕괴를 선언한 것은 아니었을까.

그런 의미에서 푸틴은 자신의 독재정권을 유지하기 위한 러시아의 보수적 맥락을 잡고 있으나 러시아의 상당수 시민은 이미 서구화되고 민주주의화돼 그 거꾸로 가는 태도를 따르지 않게 된 것은 아닌지, 더 나아가 설득될 수 없는 상황에서 일어나는 내부 분란으로 오히려 러시아 민족성의 긍지마저 해 체시키는 사건은 아닌지 앞으로 살펴봐야 할 것이다.

글 양은혜_웹진 [춤in] 편집장 | 사진 www.niemanlab.org ※ 본 원고는 지면 관계상 편집되었습니다. 원문은 웹진 [춤in]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22 May

Mon Tue Wed

2

3

4

- 연극 <체홉의 어느날>(~5.3)
- 공연 <소프라노 박지영 독창회>
- 공연 <문지원 바이올린 독주회> ● 연극 <파인 애플 땡큐 앤듀>(~5.8)
- 뮤지컬 <태양의 노래>(~6. 26)
- 뮤지컬 <클림트>(~7.17)
- 전시 <점을 찍다>(~5. 3)

● 연극 <성난 파도 속에 앉아 있는 너에게>(~5.8)

- 연극 <동치미>(~5.8)
- 뮤지컬 <춘향>(~5.8)
- 연극 <끝에서끝까지>(~5.8)
- 연극 <AC 4년>(~5. 15)
- 전시 <아홉, 혹은 아홉 아닌-려>(~5. 4)

SFAC 문화예술공간

● 금천예술공장

- 대학로연습실
- 문래예술공장
- 삼일로창고극장
- 서교예술실험센터
- 서서울예술교육센터
- 서울거리예술창작센터
- 서울무용센터
- 서울연극센터
- 서울예술교육센터
- 시민청
- 신당창작아케이드
- 연희문학창작촌
- 예술청 / 대학로센터
- 잠실창작스튜디오
- 청년예술청
- SFAC 행사·축제· 예술교육·지원 및 협력
- 기타 문화행사

※ 해당 공연·전시·행사 등의 일정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하여 변경 또는 취소될 수 있습니다.

10

- 공연 <나의 스승, 나의 제자들>
- 공연 <일리야 라쉬코프스키 피아노 리사이틀>

11

- 연극 <일분위 고독인>(~5. 15)
- 연극 <바다로 가는 기사들>(~5. 22)

16

9

- 뮤지컬 <사의찬미>(~10. 9)
- 전시 <지구와 예술_handshaking> (~5. 29)

● 공연 <심포니 송 챔버뮤직 시리즈 Ⅱ>

17

- 공연 <아무르 무지크 ㅣ. 음악과 미술>
- 뮤지컬 <넥스트 투 노멀>(~7. 31)

18

- 연극 <너무 놀라지 마라>(~6. 6)
- 전시 <그리고 아무도 아프지 않았다> (~5. 18)

23

● 전시 <여행, 크사나>(~6.4)

24

- 공연 <유지혜 반주 리사이틀>
- 공연 <임동혁 피아노 리사이틀>
- 공연 <사공유정 피아노 독주회>
- 뮤지컬 <니진스키>(~8. 21)

- 공연 <한지민, 박솔 피아노 듀오 리사이틀>
- 전시 <Skyline Forms On Earthline> (~5. 25)

30

31

- 전시 <레전더리 루이비통 트렁크>(~5.31)
- 전시 <Sacred River>(~5.31)
- 전시 <그 사람을 가졌는가>(~5.31)

בהילורה ברילורה



Thu	Fri	Sat	Sun
			1
			 연극 <눈을 뜻하는 수백 가지 단어들>(~5. 1) 연극 <서울 도심의 개천에서도 작은 발톱수달이 이따금 목격되곤 합니다>(~5. 1) 연극 <지도를 읽는 시간>(~5. 1) 연극 <낯선 얼굴로 오는가>(~5. 1)
5	6	7	8
● 공연 <엔통이의 동요나라2>(~5. 5) ● 뮤지컬 <캐리와 친구들>(~5. 5) ● 연극 <달 뜨는 감나무 집>(~5. 7) ● 공연 <2022 서울스프링실내약축제> ● 전시 <잘 드러나지 않는 통로>(~5. 2) ● 전시 <long long="" quarantine="">(~5. 2) ● 서커스 시즌 프로그램 <서커스 캬라반 '봄'>(~5. 8) ● 체험 <어린이날 놀이마당>(~5. 7)</long>	● 공연 <강호선 바이올린 독주회> ● 연극 <자본 2>(~5. 14) ● 연극 <슈퍼히어로의 탄생>(~5. 8) ● 전시 <반복되는 문장으로 주름을 연습했다>(~5. 6) ● 전시 <플레잉 소사이어티>(~5. 6)	● 공연 <이민경 바이올린 독주회> ● 뮤지컬 <바람이 불어오는 곳>(~5.8) ● 연극 <타자기 치는 남자>(~5.15) ● 연극 <돌아온다>(~6.5) ● 뮤지컬 <카파이즘>(~7.10) ● 전시 <night watcher="">(~5.7)</night>	 뮤지컬 <블루헬멧: 메이사의 노래>(~5.8) 연극 <앙상블>(~5.8) 뮤지컬 <고고다이너 공룡탐험대>(~5.8) 뮤지컬 <엄마 까투리>(~5.8) 뮤지컬 <지붕위의 바이올린>(~5.8) 연극 <맥베스>(~5.8) 연극 <지 높은 곳으로, 비상>(~5.8) 연극 <주 높은 곳으로, 비상>(~5.8)
STAGE11			
12	13	14	15
 전시 <thirstu enthusiasm="">(~5. 12)</thirstu> 공연 <오스모 벤스케의 말러 교향곡 10번>(~5. 13) 뮤지컬 <명성황후> 공연 <넥슨재단 제1회 보더리스 공연 PLAY판> 	 연극 <에스메의 여름>(~5. 14) 연극 <공포가 시작된다>(~5. 22) 연극 <세상에서 가장 용감한 강아지 하루>(~5. 22) 뮤지컬 <볼륨업>(~8. 7) 	 뮤지컬 <생텍지페리> 무용 <구두점의 나라에서>(~5. 22) 뮤지컬 <은밀하게 위대하게: THE LAST>(~7. 3) 전시 <past, future="" present,="">(~5. 14)</past,> 	 뮤지컬 <쇼만>(~5.15) 연극 <씨걸>(~5.15) 연극 <더 쓰리>(~5.15) 공연 <임형주 콘서트> 공연 <김선욱 피아노 리사이틀>
19	20	21	22
 무용 <일무>(~5. 22) 공연 <마우리치오 폴리니 피아노 리사이틀>(~5. 25) 연극 <심청전을 짓다>(~5. 28) 연극 <7분>(~5. 28) 연극 <그 순간, 시간이 멈춘다>(~5. 29) 	● 공연 <바리톤고성현 콘서트>● 국악 <환상노정기>(~5. 21)	● 뮤지컬 <핑크퐁 별니라 재즈 여행>● 무용 <만보와 별별머리>(~5. 22)	 거리예술시즌 프로그램 < 거리예술 캬라반 '봄'>(-5. 22) 매주 주말> 뮤지컬 <스톤 더 스톤>(~5. 22) 뮤지컬 <슈퍼맨처럼!>(~5. 22) 연극 <오델로>(~5. 22) 공연 <양상블 콘서트: Strings Ⅱ > 전시 <블루문>(~5. 22)
26	27	28	29
● 연극 <바냐삼촌>(~5. 26) ● 뮤지컬 <모래시계>(~8. 14)	● 연극 <질투>(~6. 5)	● 공연 <서울시향과 함께하는 오케스트라 여행> ● 연극 <벚꽃동산> ● 뮤지컬 <아리아라리>(~6. 6) ● 연극 <여도>(~7. 10) ● 전시 <chaosmos>(~5. 28) ● 서서울예술교육센터 봄소풍 프로젝트 <봄.봄></chaosmos>	● 공연 <피아졸라, 바흐를 만나다>



서울문화재단

공연 <서울 스테이지11>

서울문화재단은 매월 첫 번째 목요일 '한 달에 한 번, 오전 11시에 펼쳐지는 예술공감 콘서트' <서울 스테이지11>을 개최한다. 서울문화재단이 운영하는 예술 창작공간을 무대로클래식, 무용, 북 콘서트, 국악과 재즈의 만남등 다채로운 공연을 펼쳐 서울시민에게 예술이 있는 오전을 선사한다.

일시 5월 5일(목) 오전 11시 | 장소 서울문화재단 운영 공간(문래 예술공장, 금천예술공장, 서교예술실험센터, 연희문학창작촌, 서울무용센터, 서울예술교육센터, 서울문화재단 대학로센터, 청년 예술청, 시민청) | 관람료 무료 | 문의 02-2676-6816



서울문화재단

2022 서커스 시즌 프로그램 <서커스 캬라반 '봄'>

5월 가정의 달과 어린이날을 맞아 온 가족이함께 즐길 수 있는 유쾌하고 즐거운 서커스 공연이 펼쳐진다. 동심의 세계로 이끌어줄 캬라반이 궁금하다면 문화비축기지 T2로!

기간 5월 5일(목)~8일(일) | 장소 문화비축기지 T2 | 관람료 무료 | 문의 02-3437-0095, 0099 www.sfac.or.kr



서울문화재단

봄소풍 프로젝트 <봄.봄.봄>

청소년 중심으로 기획 및 진행되는 공연인 봄소풍 프로젝트 <봄.봄.봄>이 펼쳐진다. 댄스 및 밴드 등 다양한 장르로 구성해 관객들에게 풍성한 볼거리를 제공한다. 봄을 맞아 야외 축제도 운영한다.

일시 5월 28일(토) 오후 2시 | **장소** 서서울예술교육센터 야외 수조 | **관람료** 무료 | **문의** 02-2697-0016



서월문화재단

2022 거리예술 시즌 프로그램 <거리예술 캬라반 '봄'>

평범한 하루를 다채로운 예술로 채워보면 어 떨까? 서울숲, 노원불빛정원, 평화문화진지, 선유도공원 등 시민이 산책하는 일상 공간에 서 거리예술 공연이 펼쳐진다.

일시 4월 30일(토)~5월 22일(일) 매주 주말 | 장소 서울숲, 노원 불빛정원, 평화문화진지, 선유도공원 | 문의 02-3437-0059



서울문화재단

2021-2022 공동창작 워크숍 결과전시 <지구와 예술_handshaking>

잠실창작스튜디오, 금천예술공장, 서울무용센터, 신당창작아케이드의 전·현 입주예술가 14인(김영미, 김은설, 김하경, 김현진, 문서진, 손상우, 송주원, 이민희, 이선근, 이우주, 장해림, 전보경, 정원, 정혜정)이 '지구와 예술'을 주제로 지난 1년 동안 함께한 공동창작 워크숍의 과정 및 결과를 전시로 선보인다. 지구와새로운 관계 맺기를 위한 다양한 고민과 시도의 과정을 담았다.

일시 5월 16일(월)~29일(일) 오전 11시~오후 7시 | **장소** 윈드밀 | **관람료** 무료 | **문의** 02-423-6603



서월문화재단

시민청 어린이날 특별공연 및 놀이마당 <다시 마주하기>

어린이를 위한 클래식 이야기 공연 '동물의 사육제'가 펼쳐진다. 동물의 소리와 모습을 악기소리로 느껴볼 수 있다. 또한 대형젠가, 블록퍼즐, 블록쌓기, 낚시왕 등 어른과 아이 모두가함께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일시 5월 5일(목)~7일(토) *특별공연 5월 5월(목) 오후 2시~3시, 놀이마당 5월 5일(목) ~7일(토) 오전 11시~오후 6시 | 장소 서 울특별시청 시민청 | 관람료 무료 | 문의 02-739-7331, www. seoulcitizenshall.kr





서울문화재단

워크숍

<아츠포틴즈 오픈스튜디오 원데이 워크숍>

서울예술교육센터 5~6층에서 14~19세 청소년을 대상으로 드로잉실험실, VR드로잉워크숍, 도구창작워크숍 등을 진행한다. 자세한 내용은 서울문화재단 서울예술교육센터 홈페이지 참조.

일시 5월 5일(목) 오후 1~4시 | **장소** 서울예술교육센터 아츠포 틴즈 5층 | **대상** 14~19세 청소년 10~15명 | **참가비** 무료 | **문의** 02-3785-3189



구로문회제단 SURTURAL FOUNDATION

어린이 뮤지컬 <나무늘보 릴렉스>

빨리빨리, 그리고 최고만을 외치는 세상에서 있는 그대로의 내가 가장 멋지고 아름답다며 자존감을 쓰다듬어 주는 시간. 어린이의 자존 감이 튼튼해질 수 있는 뮤지컬 <나무늘보 릴 렉스>가 펼쳐진다.

일시 5월 14일(토) 오전 11시, 오후 2시 | **장소** 오류아트홀 | 관람 료 전석 3만 원 | **문의** 02-2614-7962



구로문회제단 GURTURAL

전시 <봄은 고양이로다>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꼬리 달린 따뜻한 친구'인 고양이를 소재로 작가 6인의 준비한 다채로운 전시다. 사랑스러운 반려 고양이, 그리고 우리와 공존하며 살아가는 길고양이 등을 볼수 있다.

일시 4월 13일(수)~5월 11일(수) | **장소** 갤러리 구루지 | **관람료** 무료 | **문의** 02-2029-175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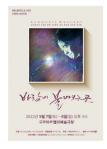


구로문회제단 CULTURAL COLFUNDATION

오류아트홀 월별시리즈 II <JM챔버오케스트라 뮤지컬과 그리그의 만남>

재치 있는 해설과 함께 JM챔버오케스트라 단원들이 꾸미는 신나고 황홀한 무대 한판. 뮤지컬 레퍼토리가 함께하는 감동의 오케스트라공연이다.

일시 5월 27일(금) 오후 7시 30분 | **장소** 오류아트홀 | **관람료** 전석 2만원 | **문의** 02-2614-7969



구로문회제단 웨앤

뮤지컬 <바람이 불어오는 곳>

김광석이 부른 주옥같은 명곡으로 구성된 주 크박스 뮤지컬 <바람이 불어오는 곳>이 찾아 간다. 우리 일상 속 가슴 따뜻해지는 이야기를 원곡의 감성 그대로 관객에게 선물한다.

일시 5월 7일(토)~8일(일) 오후 3시 | **장소** 구로아트밸리 예술극 장 | **관람료** R석 5만 원, A석 3만 원 | **문의** 02-2029-1724 별다를 것 없는 명보한 책방 별다를 것 없는 평범한 책방 별다를 정한 없는 평범한 책방 별다를 것 없는 평범한 책방 별다를 것 없는 평범한 책방 별다를 책방 별다를 책방 별다를 책방 별다를 것 없는 평범한 책방 것 없는 평범한 책방

구로문회제단 SURFURAL FOUNDATION

2022 문화다양성 주간행사 <별다를 것이 없는 '평범한 책방'>

5월 21일, UN(국제연합)이 지정한 세계문화다양성의 날을 기점으로 일주일 동안 신도림역사에서 팝업 북스토어 <별다를 것이 없는 '평범한 책방'>이 열린다.

일시 5월 21일(토)~27일(금) 오전 10시~오후 8시(월~토), 오전 10시~오후 5시(일) | 장소 서울생활문화센터 신도림 | 관람료 무료 | 문의 02-2029-1736, 1760



서<u>초</u>문화재단★*

온라인 공연 Petite Concert <The Revolutionary>

장르 간 경계를 넘나드는 공연으로 관객들의 상상력을 자극한다. 바이올린, 플루트, 하모니 카, 첼로, 비트메이커, 피아노로 구성된 앙상 블 음감이 출연한다. 서초문화재단 유튜브 채 널에서 만나볼 수 있다.

일시 5월 11일(수) 오후 7시 30분 | **장소** 유튜브 채널 서초문화재 단 | **문의** 02-3477-2805. www.seochocf.or.kr



서<u>초</u>문화재단★*

해설이 있는 발레 <클래식발레 마스터피스 I >

발레마스터가 들려주는 흥미진진한 명품 발레 갈라 콘서트다. 클래식 발레와 창작 발레의 대중화를 위해 활동하고 있는 프로발레단인 와이즈발레단이 출연한다.

일시 5월 18일(수) 오후 7시 30분 | **장소** 반포심산아트홀 | **대상** 만 5세 이상 | **관람료** 전석 1만 4천 원 | **문의** 02-3477-2805, www. seochocf.or.kr



서<u>초</u>문화재단★*

온라인 공연 해설이 있는 피아노 교수음악회 <로맨틱 피아노와 첼로 듀오>

최고의 역량을 갖춘 국내외 유수 피아노과 교수 겸 연주자들이 들려주는 해설이 있는 피아노 콘서트다. 서초국제예술단이 출연한다. 서초문화재단 유튜브 채널에서 만나볼수 있다.

일시 5월 14일(토) 오후 3시 | **장소** 유튜브 채널 서초문화재단 | **문의** 02-3477-2805, www.seochocf.or.kr



서초문화재단🏞

온라인 공연 렉처콘서트 <시대를 앞서간 명곡>

국내외 유수 연주자들의 명품 렉처와 클래식 음악을 유튜브에서 만나볼 수 있다. 피아노 김 도연, 바이올린 임정은, 리코더 방지연이 연주 하는 선물 같은 콘서트다.

일시 5월 6일(금) 오후 7시 30분 | **장소** 유튜브 채널 서초문화재 단 | **문의** 02-3477-2805, www.seochocf.or.kr



서<u>초문</u>화재단☆*

화요콘서트 <하이든 교향곡 전곡 시리즈 11>

교향곡의 '아버지'인 하이든 탄생 300주년을 기념하며 서초교향악단이 선보이는 아시아 최초 하이든 교향곡 전곡 시리즈다. 서초교향 악단이 출연한다.

일시 5월 17(화) 오후 7시 30분 | 장소 반포심산아트홀 | 대상 8세 이상 | 관람료 전석 7천 원 | 문의 02-3477-2805, www. seochocf.or.kr



서초문화재단♣*

(재)서초문화재단 서리풀 休 갤러리 <기원>

인공지능이 시각적, 인지적 진화를 거듭한다는 사변 소설 형식의 내러티브를 사용한다. 또한 다양한 시각매체로 구성된 이색 전시다. 신형록이 기록하고 조민정 작가가 참여한다.

일시 4월 4일(월)~6월 24일(금) 월~금 오전 9시~오후 6시(월 요일, 공휴일 휴관) | 장소 서리풀 休 갤러리 | 관람료 무료 | 문의 3477-2074, 070-5057-6235, www.seochocf.or.kr





서초문화재단業★

(재)서초문화재단 서리풀청년아트갤러리 <예.기.법:예술가의 기록법>

기억을 토대로 작업을 하는 세 작가가 모여 각 자의 표현 방식을 빌려 기억의 속성에 대한 본 질적인 질문을 한다. 단수민, 단재민, 김명규 작가가 참여한다.

일시 4월 23일(도)~5월 20일(금) 오전 11시~오후 7시(월요일, 공휴일 휴관) | 장소 서리풀청년아트갤러리 | 관람료 무료 | 문의 3477-2074, 070-5057-6235, www.seoripulgallery.com



공연 <2022 서울시향 오스모 벤스케의 말러 교향곡 10번>

동시대 최고의 말러 해석자 중 한 명으로 인정 받는 서울시향 음악감독 오스모 벤스케가 이 번 공연에서는 말러 교향곡 10번을 들려준다.

일시 5월 12일(목)~13일(금) 오후 8시 | **장소** 예술의전당 콘서트 홀 | **대상** 8세 이상 | **관람료** R석 9만 원, S석 7만 원, A석 5만 원, B 석 3만 원, C석 1만 원 | **문의** 1588-1210



▼도봉문화재단

평화문화진지 시민기획프로젝트 <쓰레기 영웅>

어린이들이 직접 상처 입은 쓰레기들을 구해 내는 '쓰레기 영웅'이 돼 쓸모없어서 버려진 쓰레기들의 예술적 가치를 찾고 새로운 존재 로 탈바꿈시키는 어린이 대상 예술 프로그램 이다.

일시 5월 7일(토)~30일(월) 매주 토요일 오후 2시 | **장소** 평화 문화진지 | **참가비** 총 4회 2만 원 | **문의** 02-3949-1970, lyb@ dbfac.or.kr



조수미 & 13인의 빈 필하모닉 플레이어즈 <Love from Vienna (with Sumi Jo)>

음악을 넘어 한국을 상징하는 이 시대의 여성 리더, 성악가 조수미의 콘서트다. 조수미 특유 의 밝고 명쾌한 음색으로 요한 슈트라우스, 프 란츠 레하르의 곡 등 비엔나의 경쾌한 리듬을 만나볼 수 있다.

일시 5월 11일(수) 오후 7시 30분 | **장소**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 **대상** 8세 이상 | **관람료** R석 20만 원, S석 16만 원, A석 12만 원, B석 8만 원 | **문의** 02-3461-0976



연극 <바다로 가는 기사들>

아일랜드의 한 외딴 섬. 캐슬린과 노라는 마을 사람들로부터 오빠 마이클 것으로 추측되는 옷가지를 받는다. 캐슬린과 노라는 이것을 바 로 엄마인 모리야에게 보여드리면 상심에 빠 질 것이므로 잠시 감춰둔다.

일시 5월 11일(수)~22일(일) 화~금 오후 8시, 토 오후 4시, 7시, 일 4시 | 장소 소극장공유 | 관람료 2만 원(예술인패스 및 학생 할 인 40%) | 문의 010-2717-553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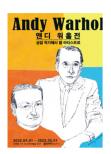


전시 <과학의 눈으로 환경을 보다>

서울에너지드림센터가 국립과학관과 함께 환경과학체험전시를 개최한다. 과학과 환경을 접목한 전시품으로 구성되며 자연과 에너지원리를 체험하고 지속가능발전목표와 환경에대해 생각해 볼 수 있다.

일시 4월 5일(화)~5월 31일(화) | **장소** 서울에너지드림센터 1층 드림갤러리 | **관람료** 무료 | **문의** 070-8853-974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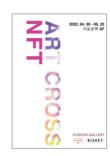


전시

<앤디 워홀 : 상업 작가에서 팝 아티스트로>

대중문화의 요소를 예술의 영역으로 끌어들 여 팝아트를 개척한 20세기를 대표하는 앤디 워홀의 작품을 감상할 수 있다. 갤러리 북과바 디 개관 기획전이다.

일시 4월 1일(금)~5월 31일(화) | **장소** 갤러리 북과바디 | **관람료** 3천원 | **문의** 070-8028-4236



전시, 공연

<아트 크로스 NFT(ART CROSS NFT)>

디지털 작품에 대한 소유권을 암호화폐로 구입해 그 작품성을 증명하는 시스템인 NFT 방식을 적용한 전시, 공연, 나아가 구매의 기회를 가로수길 가로골목에서 만나볼 수 있다.

일시 4월 30일(토)~5월 22일(일) | **장소** 가로골목 5층 | **관람료** 무료 | **문의** 02-3443-1396



전시 <임채욱 : Blue Mountain_Stairway to Heaven>

오랜 시간 산을 그려온 임채욱의 전시다. 이번 전시에서는 지리산 노고단에서 바라본 블루 마운틴의 초현실적 풍경을 관람할 수 있다. 레 드 제플린의 'Stairway to Heaven'이 수록된 작가의 작업 영상을 공개한다.

일시 4월 1일(금)~5월 22(일) 오후 1시~오후 7시(화~토), 오후 1 시~오후 5시(일) | **장소** 갤러리을지로 | **문의** 0507-1349-2594



신촌문화발전소 문화예술연계강좌 <과거에서 온 오늘의 편지: 백년 전 영문학 에서 다가올 백년을 읽는다>

오늘의 현안을 네 가지 주제(기후변화, 청년, 젠더, 기술)로 나눠 이에 부합하는 영문학 고 전을 선정 후 토의하는 문화예술연계강좌이 다. 신촌문화발전소에서 열린다.

일시 4월 9일(토)~5월 25일(수) 오후 7시 | **장소** 신촌문화발전소 | **참가비** 무료 | **문의** 02-330-4394



공연 <한지민, 박솔 피아노 듀오 리사이틀>

한지민, 박솔 두 피아니스트의 앙상블 공연이다. 이번 공연에서는 세계적인 음악가 알베니스, 생상스, 라벨, 모차르트 등의 주옥과 같은 피아노곡을 연주한다.

일시 5월 25일(수) 오후 7시 30분 | 장소 세종문화회관 체임버홀 | 대상 만 7세 이상 | 관람료 2만 원 | 문의 02-586-0945



현대음악앙상블 '소리' 2022 기획연주회 <TRILOGY X - 'Born in 1940's >

전쟁의 비참함을 목도하는 요즘, 현대음악앙 상블 '소리'는 전쟁 전후 큰 어려움을 겪었던 1940년대에 탄생한 작곡가들을 조망한다. 그리제이와 뮈라이, 샤리노, 아페르기스, 젠킨 스 등의 작품을 연주한다.

일시 5월 24일(화) 오후 7시 30분 | 장소 예술의전당 |BK챔버홀 | 관람료 R석 5만 원, S석 3만 원, A석 2만 원(학생 할인 50%) | 문 의 02-515-5123



거리예술 캬라반

4. 23.(토) ~ 5. 22.(일) 매주 주말 DDP, 서울숲, 노원 불빛정원, 평화문화진지, 선유도공원

함께 만들어갑니다 [문화+서울]

웹진 [문화+서울] www.sfac.or.kr/magazine

좀 더 나은 [문화+서울]을 만들기 위해 독자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립니다. 가장 좋았던 기사나 제안하고 싶은 것들, 어떤 의견이든 적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의견을 주신 분들께 [문화+서울]을 1년 동안 보내드립니다.



온라인 독자 엽서 링크 url.kr/wgl4zd

온라인독자엽서

이경하님(서울시 마포구)

- 1. 어디에서 [문화+서울]을 만나셨나요? 서울시50플러스재단
- 2. [문화+서울]에서 가장 흥미롭게 읽은 기사는 무엇인가요? 도시에서 마주친 미디어아트
- 3. [문화+서울]에서 다뤄주었으면 하는 내용이나 편집부에 하고 싶은 말씀을 적어주세요.

코로나19 이전 일상생활 복귀가 기대됩니다.^^ 포스트 코로나를 맞아 재오픈하는 문화 공연 기사가 있었으면 합니다.

주요 배포처

국립극장, 국립정동극장, 국립중앙박물관, 금천예술공장, 두산아트센터, 문래 예술공장, 백성회장민호극장, 백암아트홀, 삼일로창고극장, 상명아트센터, 서교예술실험센터, 서서울예술교육센터, 서울거리예술창작센터, 서울도서관, 서울무용센터, 서울문화재단(본관), 서울문화재단 대학로센터, 서울시립미술관, 서울시 자치구 문화재단 및 문화원, 서울연극센터, 서울예술교육센터, 시민청, 신당창작아케이드, 아르코미술관, 연희문학창작촌, 잠실창작스튜디오, 중랑아트갤러리, 청년예술청, 한국공연예술센터, KT&G 상상마당, LG아트센터 등

[문화+서울]을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지는 무가지로 발간되므로 별도 의 구독 요청이 불가합니다. 주요 배포처에 방문하셔서 비치된 잡지를 무료로 가져가시면 됩니다.

편집후기

한 시절을 함께한 동료를 보내는 봄, 그의 또 다른 시작을 응원합니다. 김영민 서울문화재단 홍보IT팀 부족한 제게 따숩고도 다정했던 많은 분들, 감사했습니다. 홍지형 서울문화재단 홍보IT팀 찬바람 불던 어느 밤, 술잔을 함께 기울이던 우리가 있었고, 그게 우리가 누린 전부는 아니었습니다. 연재인 서울문화재단 홍보IT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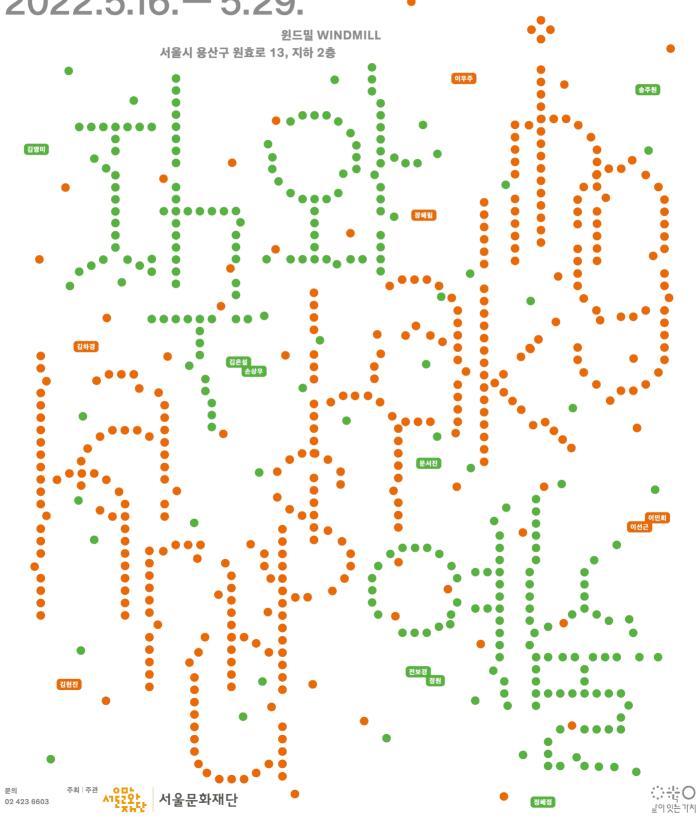
'살다 보면 같은 시대에 같은 장소에서 산다는 것만으로도 대단한 필연'입니다. 전민정 객원 편집위원 준비되지 않은 어떤 마음을 기다려주는 듯 올해 벚꽃은 느지막이 피었다. 장보영 객원 기자 4월에서 5월로 건너는 그사이, 그때가 누군가에게는 봄의 시작이었을 것입니다. 장영수객원 기자

*이번 호의 편집 후기는 8~9쪽에 실린 황현진 소설가의 현장스케치 '들으려는 마음이 있었기에 우리는 만났다'를 인용했습니다.

2021-2022

공동창작 워크숍: 지구와 예술 handshaking

2022.5.16. - 5.29.





<서울 스테이지11>이 열리는 연희문학창작촌

테마토크

<서울 스테이지11>

이슈 1

장벽을 낮추는 극장

이슈 2

아트마켓 <에스스토어S-store>

문화인

반도네오니스트 고상지

5월의 서울문화매뉴얼

